

2026
대한민국은
공연중



대한민국은 공연중
누리집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술경영지원센터

10.1.Thu - 11.30.Mon



대표 축제·마켓

리바운드축제	8
서울아트마켓	48
서울국제공연예술제	80

전국은 공연중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연중	122
경기도는 공연중	123
경남은 공연중	124
경상북도는 공연중	125
대구는 공연중	126
대전은 공연중	127
부산광역시는 공연중	128
서울은 공연중	129
세종은 공연중	130
울산은 공연중	131
인천은 공연중	132
전북은 특별한 공연중	133
전남광주는 공연중	134
특별한 광주는 공연중	135
제주는 공연중	136
충청남도는 공연중	137
충북은 공연중	138

크레딧

2025 대한민국은 공연중

공연보기 좋은 가을, 우리는 공연 관람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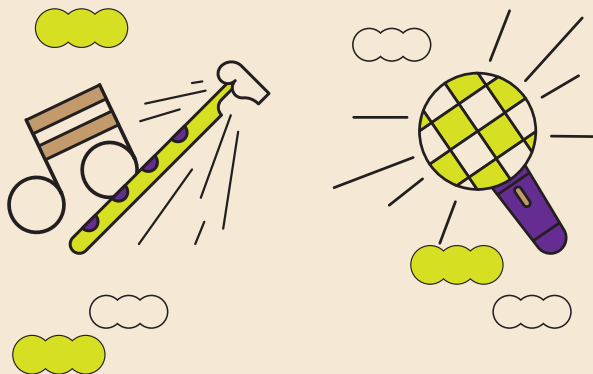
전국 500여 개 공연장에서 약 1,700편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음악까지 다채로운 예술의 향연.
가까운 공연장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무대를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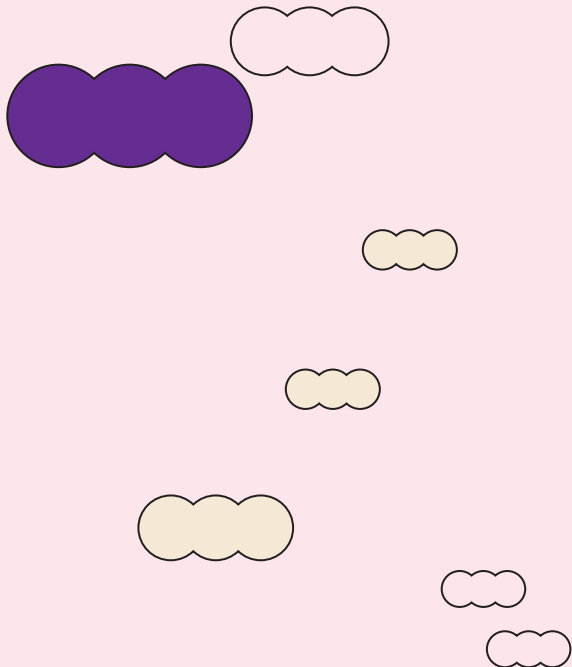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전국의 다양한 공연을 한데 소개하고,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공연을 찾아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
공연예술 관람 캠페인입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리:바운드 축제 등과 함께
전국에서 10월과 11월을 공연 보는 계절로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10~11월간 펼쳐지는 공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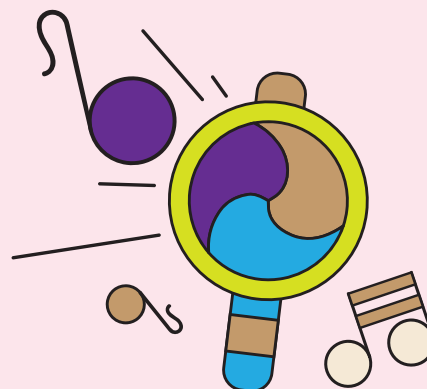
약 1,700여 개





대표 축제·마켓

공연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축제와 마켓이 한자리에!
국제 교류, 신작 발표, 창작자와 관객의 만남까지,
올가을 한국 공연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하세요.



2026
Re:BOUND
FESTIVAL

Re:Bound
리바운드 축제
2026.10.16~11.14



PAMS
서울아트마켓
2026.10.13~10.16



spaf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26.10.8~10.25



전통 | Traditional

떡보와 아리랑 다섯 고개 호랭이: 사라진 할머니를 찾아서



- 공연단체/아티스트 극단 꼭두광대
- 일정 10.18.(Sun) 15:00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티켓가격 20,000원
- 관람시간 60분
-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청주아리랑과 탈춤으로 펼쳐지는 떡보의 다섯 고개 모험"

다섯 호랭이가 지키는 고개를 넘으며 욕심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참여형 가족 탈놀이극

Credit

예술감독: 장철기
출연: 홍정연, 김성연, 정성진, 이주형, 박광서, 연시현, 김민송, 양은송
연주: 김서하, 이재웅, 김혜진, 송사백, 박세은
원작: 김지영
각색: 이해인
연출: 장한새
협력연출: 주은길
탈제작: 이석금, 이흥원, 황병권
의상제작: 정혜영
드라마투르그: 김정이
음악감독: 김솔지
조명감독: 양해연
PD: 김성연
무대감독: 박영광
기획: 안현진
음향: 김대경
영상: 최돌래
사진: 우기곤

뮤지컬 | Musical

피노기오



- 🎭 공연단체/아티스트 극단 현장
- 📅 일정 10.21.(Wed) 20:00 / 10.22.(Thu) 20:00
-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60분
- 😊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NOL 티켓

"전통연희와 옛이야기로 새롭게 태어난 한국형 피노기오"

꼭두각시놀음과 사자놀음, 익숙한 옛이야기를 엮어 춤과 노래, 해학과 상상력으로 풀어낸 K-Kids 뮤지컬

Credit

제작PD: 정대균
출연: 임규섭, 최동석, 김진호, 강규안, 송광일, 황윤희
기획총괄: 박범주
연출: 고능석
작가: 김인경
안무: 오세란
음악: 채석진
음향감독: 강민주
조명감독: 이금철
무대·소품: 강희은
음향OP: 박소휘
조명OP: 이수민
기획·홍보: 박진희
사무행정: 이동은

연극 | Theatre

선녀씨 이야기



- 🎭 공연단체/아티스트 극단 예도
- 📅 일정 10.30.(Fri) 19:30 / 10.31.(Sat) 15:00
-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90분
- 👤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NOL 티켓

"하늘로 가지 못한,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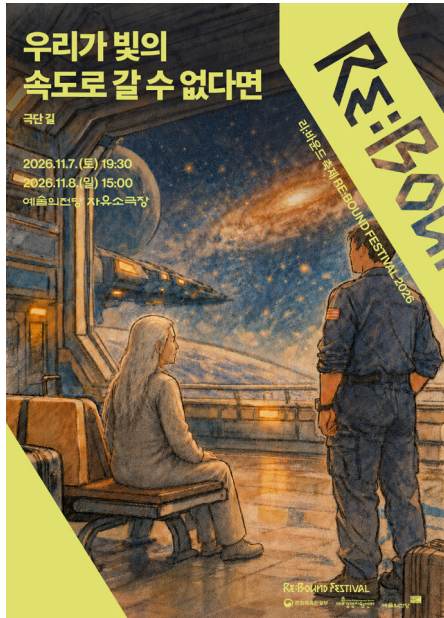
1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어머니의 삶과 희생을 마주하며 뒤늦은 후회와 사랑을 되새기는 연극

Credit

대표·연출: 이삼우
출연: 고현주, 이삼우, 박선헌, 변상윤, 양은미, 김한나, 최성일, 박준수
조연출: 주은희
무대감독: 이상현
조명감독: 배대두
분장감독: 김현
음향감독: 김인하
조명OP: 김수연
음향OP: 이장헌

연극 | Theatre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 공연단체/아티스트 극단 길
- 📅 일정 11.7.(Sat) 19:30 / 11.8.(Sun) 15:00
-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80분
- 👤 관람연령 초등학교생 이상 (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100년의 기다림 끝에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다."

김초엽 작가의 SF소설을 미디어아트와 연극으로 구현해 기술 너머 인간의 믿음과 삶의 의미를 묻는 멀티미디어 SF연극

Credit

- 연출: 이정길
- 출연: 장희량, 김민철, 이흔지, 이보람, 이한엽, 성홍석, 진윤정, 이은정, 김성환
- 조연출: 김주안
- 원작: 김초엽
- 각색: 이정길, 김주안
- 음악감독: 전현미
- 무대디자인: 황지선
- 조명디자인: 조세현
- 무대제작감독: 김재한, 이안호
- 영상디자인: 이현우
- 영상감독: 최승환
- 음향감독: 이호원
- 무대감독: 손희승, 이하슬
- 협력: 포항문화재단

무용 | Dance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 🎭 공연단체/아티스트 전북발레시어터
- 📅 일정 11.14.(Sat) 15:00
-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60분
- 😊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발레와 마술로 펼쳐지는 환상의 오즈"

도로시와 친구들이 지혜와 사랑, 용기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재해석한 동화발레

Credit

총연출·안무: 박진서
출연: 박은정, 송준명, 이현우, 김규빈, 문원섭, 임소라, 이상훈, 정휘건, 김재욱, 권나라, 김민서, 고가흔, 유혜진, 최예지, 전세연
조명: 권진영
무대: 김광민
기획: 조미영
홍보: 오유나

연극 | Theatre

4통 3반 복층 사건



- 🎭 공연단체/아티스트 예술공간 오이
- 📅 일정 10.16.(Fri) 19:30 / 10.17.(Sat) 15:00
- 📍 공연장소 오유아트홀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90분
- 😊 관람연령 12세 이상



NOL 티켓

"과거와 현재, 두 개의 시간이 한 공간에서 마주하다"

제주 4·3의 아픔과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복층 공간에서 교차하며 전하는 기억과 공감, 연결의 이야기

Credit

연출: 전혁준
출연: 남석민, 강미진, 고승유, 김소여, 강영지, 김경미, 우서울, 오상운
조연출: 전하얀
조명감독: 박민수
음악감독: 러피

연극 | Theatre

꽃신 그 길을 따라



- 🎭 공연단체/아티스트 올림아트n' 컴퍼니
- 📅 일정 10.23.(Fri) 19:30 / 10.24.(Sat) 15:00
- 📍 공연장소 오류아트홀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60분
- 😊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NOL 티켓

"삶의 마지막 길에서 마주하는 기억과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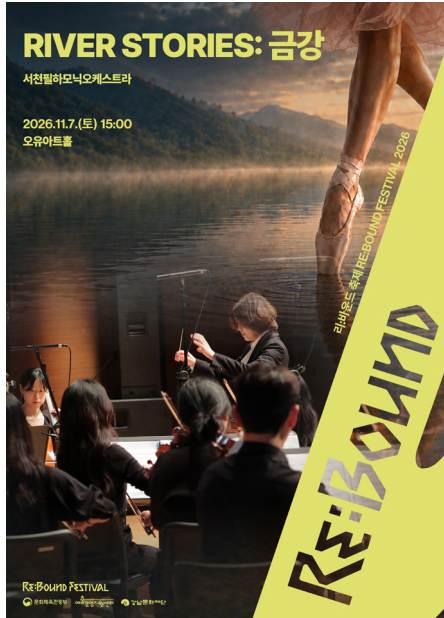
중증 치매 할머니와 손녀가 서로를 돌보고 건디는 시간 속에서 가족의 갈등과 용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연극

Credit

연출: 채민석
출연: 이승철, 심순영, 김미숙, 김요셉, 권화숙, 이은비
작가·기획: 박주리
액팅코치: 강지수
조명감독: 이규진
영상촬영: 김기영
무대·소품: 김재선
디자인: 박재원

음악 | Music

RIVER STORIES: 금강



- 🎫 공연단체/아티스트 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 일정 11.7.(Sat) 15:00
- 📍 공연장소 오류아트홀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50분
- 👤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NOL 티켓

"강은 사람을 품고, 사람은 문화를 이어간다"

금강을 따라 이어진 자연과 사람, 문화의 흐름을 오케스트라 선율과 현대무용으로 펼쳐내는 무대

Credit

예술감독: 권해경
지휘: 권해경
연주: 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무용: 와이즈발레단
조연출·무대감독: 강정남
작곡·편곡: 윤성현 외 2인
영상디자인: 강동엽
조명디자인: 최기덕
음향감독: 강해신

음악 | Music

우리아빠



- 🎭 공연단체/아티스트 씨엘오페라단
- 📅 일정 10.29.(Thu) 19:30
- 📍 공연장소 구로창의아트홀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65분
-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능



NOL 티켓

"세상 모든 아빠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사랑 이야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창작오페라

Credit

예술총감독: 김순화
출연: 김재민, 최기수, 강동진, 백성영, 이성경, 이경희
연주: 씨엘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출: 윤상호
대본: 이승원
작·편곡: 장민호
기획: 박해원
악장: 김상현
음악코치: 정은숙
분장·헤어: 배시아
음향: 제이앤제이사운드
무대감독: 이장용
조명감독: 김용년
소품·의상: 정윤희
PM: 박서희

음악 | Music

OPERA in CHAMBER



- 🎭 공연단체/아티스트 대구 비르투오조 챔버
- 📅 일정 10.31.(Sat) 17:00
- 📍 공연장소 구로창의아트홀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70분
- 😊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NOL 티켓

"오페라 거장들의 또 다른 음악, 실내악으로 만나다"

로시니부터 베르디, 푸치니, 슈트라우스까지 오페라 거장들의 실내악을 해설과 연주로 만나는 무대

Credit

스태프: 이다은
해설: 장일범
베이스: 전태현
피아노: 이은혜
연주: 대구 비르투오조 챔버

전통 | Traditional

동동마을을 구해주세요



- 🎭 공연단체/아티스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 📅 일정 10.17.(Sat) 11:00, 14:00
- 📍 공연장소 노원어린이극장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50분
-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신나는 국악과 함께 배우는 지구를 지키는 방법!"

남사당 덜미, 땅줄타기, 진도북놀이, 설장고 등 신명나는 국악과 함께 생활 속 환경보호와 분리배출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환경국악극

Credit

기획·연출: 서광일
출연: 이새봄, 백지원, 한지영, 최민우, 최병진, 차영서
안무: 김호석
작가: 이새봄
스태프: 신희숙, 신혜진, 김자은

음악 | Music

키즈 바로크: 텔레만 아저씨의 이야기 보따리



- 🎭 공연단체/아티스트 코리안 바로크 소사이어티
- 📅 일정 10.24.(Sat) 11:00
- 📍 공연장소 노원어린이극장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65분
- 👤 관람연령 48개월 이상



"바로크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동화 속 모험!"

걸리버와 돈키호테의 모험을 성우의 연기와 애니메이션, 300년 전 바로크 악기의 생생한 선율로 만나는 음악극

Credit

연출: 민경옥
출연: 김나연, 고성희, 안지원, 조현근, 이효원, 전현호, 김현수, 이은지
성우: 김연아
작가: 조명숙
음악감독: 이은지
음향감독: 신영광
조명감독: 김하림
영상감독: 황희경
무대스태프: 김희진, 김드보라

음악 | Music

초록이의 위대한 모험



- 🎭 공연단체/아티스트 태백오페라단
- 📅 일정 10.31.(Sat) 11:00, 14:00
- 📍 공연장소 노원어린이극장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70분
-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NOL 티켓

"모든 변화는 작은 꿈을 꾸면서 시작된다!"

배추밭의 애벌레 친구들이 꿈을 향해 성장하는 모험을 통해 기다림과 용기,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어린이를 위한 창작오페라

Credit

총예술감독·연출: 임지혜
출연: 김경희, 금교동, 박나리, 변한나, 이주성, 이은경, 유슬, 정찬균
무용: 정예린, 한지원, 황희정
음악감독: 박현미
극본: 하해영
무대감독: 강전욱
음향: 큐사운드
조명: 솔라이트
무대: 핼아트연구소
영상: 프로덕션 이리
무대의상: 인우

전통 | Traditional

로미오와 줄리엣



- 🎭 공연단체/아티스트 한국중고제판소리진흥원
- 📅 일정 10.22.(Thu) 19:30
- 📍 공연장소 까망돌어울마당 아트홀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80분
- 👤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NOL 티켓

"조선에서 다시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으로 옮겨 판소리와 우리 춤, 민속연희로 새롭게 풀어낸 창극

Credit

연출·작가: 박성환
출연: 박성우, 한시형, 이설아, 이세영, 박상우, 정진성, 이정화
연주: 이준, 조봉국, 최태영
작·편곡 음악감독: 나실인
무대감독: 이정호
기획: 오미환
조연출: 박예정
의상·소품: 유은정
무대디자인: 김호준
조명: 김민우
음향: 유이레

연극 | Theatre

봉천내사람들(만두전성시대)



- 👤 공연단체/아티스트 씨어터컴퍼니웃끼
- 📅 일정 11.5.(Thu) 19:00
- 📍 공연장소 까망돌어울마당 아트홀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100분
-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능



NOL 티켓

"만두처럼 어우러져 살아가는 봉천내 사람들의 이야기"

원주 봉천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웃들의 삶과 추억을 '만두'를 매개로 따뜻하고 유쾌하게 풀어낸 연극

Credit

작·연출: 이석표
출연: 김미진, 윤상돈, 박하늘, 정수석, 장현구, 염지웅, 이송이, 김수영, 정호영, 유술아, 박승원, 김래훈
조연출: 최규창
예술감독: 한원식
무대감독: 김성수
음악작곡·음향디자인: 김희범
작화: 안성환
무브먼트 디렉터: 안형국
분장디자인: 신우경
조명디자인: 강동주
음향감독: 이양규
촬영감독: 박푸름
진행: 황인희

전통 | Traditional

HIPULSE



- 👤 공연단체/아티스트 사물놀이 느닷 컴퍼니
- 📅 일정 11.7.(Sat) 15:00
- 📍 공연장소 본동어울마당 아트홀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60분
- 👤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NOL 티켓

"전통의 장단,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뛰다"

사물놀이의 힘찬 장단에 젊고 유쾌한 에너지를 더해 전통의 흥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창작 사물놀이 콘서트

Credit

작곡·음악감독: 이준형
사물놀이 느닷 컴퍼니: 권설후, 이준형, 표한진, 주영호, 박성근
태평소: 오영빈, 남기문
무용: 최예지, 박민영, 모주빈
사회: 김재우
편곡: 오영빈
무대감독: 강하리
조명디자이너: 김민재
음향: 에어시스템즈
영상·사진촬영: 레디포커스
기획: 임희연

연극 | Theatre

퓨전 심청전



- 🎭 공연단체/아티스트 극단예촌
- 📅 일정 11.14.(Sat) 15:00
- 📍 공연장소 본동어울마당 아트홀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70분
- 👤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우리 고전 '심청전', 유쾌한 퓨전 무대로 다시 태어나다"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연희와 연극, 무용, 댄스 퍼포먼스를 한 무대에 담아낸 가족참여형 공연

Credit

작·연출: 이승원
출연: 이수정, 손인찬, 유미경, 김현진, 조영길, 김태영, 이다운, 이도경, 임재필, 풍물팀(4인), 비보이팀(5인)
기획: 유미경
조연출: 이다운
조명감독: 유예찬
음향감독: 고현지
무대감독: 정민철
기술감독: 전민규
촬영: 이동섭
운영매니저: 이승은

전통 | Traditional

길 The Way



- 🎭 공연단체/아티스트 사물놀이 물개
- 📅 일정 10.16.(Fri) 16:00
- 📍 공연장소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60분
-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능



NOL 티켓

"우리 삶의 수많은 인연과 감정을 음악으로 그리다"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와 퍼포먼스를 더해 삶의 여정을 담아낸 무대

Credit

- 총감독: 이영광
- 출연: 이영광, 서명희, 유근철, 윤정민, 김병주, 현호군, 김훈, 이호민, 김기철, 김승진, 류정용, 이신애
- 예술감독: 서명희
- 음악감독: 류정용
- 음향감독: 김민영
- 조명감독: 마민혁

음악 | Music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 공연단체/아티스트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 일정 10.21.(Wed) 19:30
- 📍 공연장소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 티켓가격 20,000원
- ⌚ 관람시간 110분(인터미션 15분 포함)
- 👤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미취학아동 입장 불가)



NOL 티켓

"고뇌에서 원숙함으로, 브람스의 두 얼굴을 만나다"

청년 브람스의 고뇌와 원숙한 브람스의 여유, 서로 다른 두 정서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클래식 공연

Credit

단장: 김흥기
지휘: 구모영
피아노: 한상일
연주: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획홍보: 김광현, 이영우, 이서윤, 황혜지
악보: 김일섭
총무: 김봄

뮤지컬 | Musical

1457, 소년 잠들다



- 공연단체/아티스트 극단 시와 별
- 일정 10.22.(Thu) 14:00, 19:30
- 공연장소 서일대 배양관 예다움홀
- 티켓가격 20,000원
- 관람시간 90분
-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NOL 티켓

"비운의 소년 왕 단종,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다"

열두 살에 왕이 되어 영월에서 생을 마친 단종의 마지막 시간을 장릉 도깨비의 시선으로 새롭게 그려낸 창작뮤지컬

Credit

연출: 이호영
출연: 조배근, 주시진, 강지원, 황형석, 강미선, 신혜민, 권솔, 문석희, 공혜경, 서기만, 이석일, 강지우, 조민서, 음소윤, 길태용, 정수아, 함지연, 이경희, 윤형숙
극작: 상지윤
작곡: 김은지
조연출: 서태원
영상감독: 정대겸
운영실장: 신경옥
홍보: 커넥티브
촬영: 레오네 픽처스
하우스매니저: 박미선

다원/기타

완창판소리프로젝트2 _강산제 수궁가



- 👤 **공연단체/아티스트** 입과손스튜디오
- 📅 **일정** 10.13.(Tue) 16:30
- 📍 **공연장소** 국립중앙극장 하늘극장
- 🎫 **티켓가격** 서울아트마켓 등록자 무료 / 미등록자 공연당 10,000원
- 🕒 **관람시간** 전막 90분 / 쇼케이스 40분
- 👥 **관람연령** 7세 이상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는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오늘의 극장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판소리 공연이다. 병든 용왕과 권력을 둘러싼 수궁의 신하들, 그리고 위기를 재치로 벗어나는 토끼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과 욕망, 인간 군상에 대한 해학과 풍자가 펼쳐진다.

공연은 소리꾼과 고수의 전통적인 판소리 형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연희와 민요를 함께 배치하여 마당에서 형성되던 '판'의 역동성을 극장 공간 안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판소리의 언어와 서사를 관객이 보다 명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공연 자막을 활용하여 서사와 음악의 흐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궁가〉가 담고 있는 권력과 생존에 대한 풍자는 오늘의 사회를 비추는 이야기로 더욱 선명하게 읽히고 있다. 〈완창판소리프로젝트 2_강산제 수궁가〉는 전통 판소리가 오늘의 관객과 어떻게 공감하며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레퍼토리이다.

Credit

- 연출: 이상숙
- 무대디자이너: 남경식
- 음향디자이너: 장태순
- 조명디자이너: 이유진
- 무대감독: 김지명
- 소리꾼: 신유진
- 공동창작/바깥소리꾼: 이승희
- 공동창작/고수: 이향하, 김홍식
- 고수: 정준규
- 연희단: 김광수, 이동근, 성유경, 안태원, 지경태
- 민요단: 조원석, 한진수
- 책임프로듀서: 유현진
- 프로듀서: 손소영

음악 | Music

기계장치의 음악



- 👤 **공연단체/아티스트** 무지카 엑스 마키나
- 📅 **일정** 10.13.(Tue) 19:30
- 📍 **공연장소** 국립중앙극장 달오름극장
- 🎫 **티켓가격** 서울아트마켓 등록자 무료 / 미등록자 공연당 10,000원
- 🕒 **관람시간** 전막 60분 / 쇼케이스 40분
-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기계장치의 음악〉은 유럽의 고음악과 현대의 사운드, 음악에 관한 섬세한 말들을 '다큐멘터리 씨어터 형식'으로 엮어낸 이머시브 사운드 퍼포먼스이다. 리코더와 테오르보 등 유럽의 고악기와 모듈러 신시사이저, 동력 장치를 사용한 사물 등을 더한 이 무대는 세 음악가가 공동 창작한 5개의 장면과 관객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1개의 장면, 4개의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가 '소리 듣기'의 본질적 경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관객들은 침묵에 가까운 소리부터 공간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소리의 파도까지 내밀한 소리 듣기의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공연을 통해 아주 사소한 소리조차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완전한 몰입의 시간을 통해, 파편화된 소리들이 어떻게 서로의 결을 간직한 채 하나의 풍성한 울림으로 확장되는지 체감하고 그 속에서 다채로운 조화의 미학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Credit

- 연출:** 장병욱
- 출연·공동창작:** 김규리, 이호석, 윤현종
- 기획:** 류혜정
- 프로젝트 매니저:** 손서정
- 음향감독:** 허정욱
- 무대감독:** 추명석
- 영상감독:** 조연석, 이대훈
- 조명감독:** 신동선

무용 | Dance

기초무용: 기적의 공식



- 👤 공연단체/아티스트 최강 프로젝트
- 📅 일정 10.14.(Wed) 17:30
- 📍 공연장소 국립중앙극장 하늘극장
- 🎫 티켓가격 서울아트마켓 등록자 무료 / 미등록자 공연당 10,000원
- 🕒 관람시간 전막 55분 / 쇼케이스 40분
- 👤 관람연령 12세 이상

감정이 소거된 자리, 호흡만으로 몸은 어떤 기억을 불러오는가? 의도적으로 감정을 차단하고 감각을 지연시킨 몸 그렇게 사이를 벌려놓은 몸이 호흡하기 시작한다. 들숨과 날숨의 반복 속에서 근육에 새겨진 기억이 자극되고 특정한 감정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기초 무용: 기적의 공식>은 최x강 프로젝트가 창단한 2015년에 발표한 <기초 무용>을 새롭게 꺼내 올려 재창작한 작품이다. 2015년의 <기초 무용>이 몸 구석구석, 근육에 충충이 쌓인 기억을 불러내 특정한 감정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에 주목한 작업이었다면, 2025년의 <기초 무용: 기적의 공식>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기쁨, 슬픔, 분노, 공포-을 불러일으키는 호흡 패턴과 근육 감각의 관계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패턴의 응용과 변주로 확장한다.

최x강 프로젝트는 '감정이 지나간 흔적'만 남아 있던 몸, 감정도 움직임도 완전히 정의되지 않은 '사이에' 놓인 몸을 '감정 탈색 상태(emotional de-saturation), 호흡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 상태'로 두고 몸의 입구로 진입한다. 기억은 한 번에 소환되기보다 신체의 다른 근육을 자극하며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호흡이 유도하는 근육의 기억은 개인의 서사를 불규칙하게 호출해 낸다. 최민선, 강진안 두 안무가가 불러낸 이 세계는 고정되지 않으며, 어딘가 지연되거나 혹은 찰나에 사라지기도 한다. <기초 무용: 기적의 공식>은 이렇듯 의도된 호흡과 근육 감각, 기억의 조합을 맥락화해 나간다.

Credit

안무·출연: 최민선, 강진안
조명디자인: 공연화
사운드디자인: 교요한
무대감독: 조은진
조명 프로그래퍼: 김세현
프로듀서: 이보라미

무용 | Dance

더 벨트



- 👤 공연단체/아티스트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 📅 일정 10.14.(Wed) 18:30
- 📍 공연장소 국립중앙극장 달오름극장
- 🎫 티켓가격 서울아트마켓 등록자 무료 / 미등록자 공연당 10,000원
- ⌚ 관람시간 전막 60분 / 쇼케이스 40분
- 👤 관람연령 8세 이상

움직임이 모든 것을 말한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에너지와 살아 숨 쉬는 무대, The Belt.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 몰아치는 무대 위, <더 벨트 The Belt>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축적해 온 감각과 에너지를 응축한 결정체다.

정해진 형식은 없다. 강렬한 에너지와 감정의 파동이 몸을 이끌고, 그 솔직한 움직임은 감각을 정면으로 파고든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관객을 그 흐름 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긴다.

무용수들은 서로의 호흡에 기대어 유기적인 리듬을 만들고, 반복과 변주의 사이사이, 매 순간 새로운 장면이 피어난다. 음악, 조명, 의상, 무대—모든 요소가 함께 숨 쉬며 하나의 움직임이 된다.

2024년 영국 초연 당시, ★★★★★ 평점과 함께 Offies Awards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며 작품성을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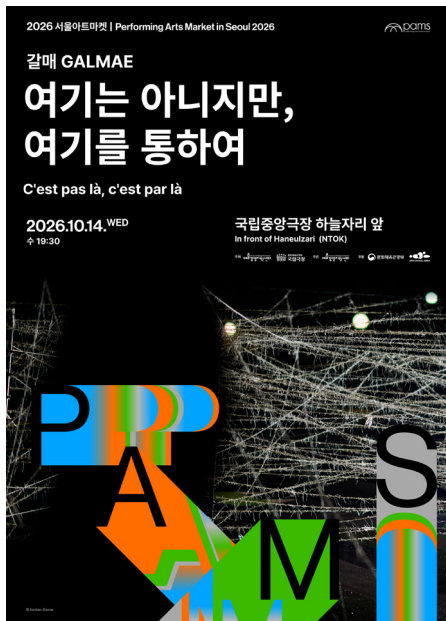
<더 벨트 The Belt>는 현대무용의 경계를 넓히며, 누구나 감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열린 예술을 제안한다.

Credit

안무·무용수: 김보람
무용수: 장경민, 서보권, 김덕용, 김현호, 이승아, 이신우, 이나림, 김미소
조명디자이너: 황규연
음향디자이너: 안형록
프로덕션 매니저: 한지현
컴퍼니 매니저: 허용

다원/기타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통하여



- 🎭 공연단체/아티스트 갈매
- 📅 일정 10.14.(Wed) 19:30
- 📍 공연장소 국립중앙극장
- 🎫 티켓가격 서울아트마켓 등록자 무료 / 미등록자 공연당 10,000원
- 🕒 관람시간 전막 45분 / 쇼케이스 40분
- 😊 관람연령 10세 이상

군중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혼자일 때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와 다르게 움직이는가?
무엇이 '우리'를 만드는가?
집단 속에서 개인은 무엇이 되는가?

시작점에는 돌이 있다.
돌과 함께 줄이 있다. 줄은 감겨 있고, 얽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푼다.
우리는 움직이고, 서로를 피하고, 협상하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다.

나는 여전히 개인들의 합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

2015년 서울의 한 정치적 시위가 몸에 남긴 감각에서 출발해, 이 작품은 서로의 조건이 되는 몸들 사이에서 개인이 어떻게 흔들리고, 집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따라간다.

Credit

연출: 이주형
출연: 폴린 라벤느
조명·음향: 마틴 비힐러

음악 | Music

나무의 시간



- 🎭 공연단체/아티스트 그레이바이실버
- 📅 일정 10.15.(Thu) 17:30
- 📍 공연장소 국립중앙극장 하늘극장
- 🎫 티켓가격 서울아트마켓 등록자 무료 / 미등록자 공연당 10,000원
- 🕒 관람시간 전막 80분 / 쇼케이스 40분
- 👤 관람연령 7세 이상

그레이바이실버의 3집 <Time of Tree : 나무의 시간>은 자연과 시간, 그리고 그 속의 우리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이들은 자연을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아, 정원사 이대길을 비롯해 사진·영상·음향을 맡은 창작자들과 함께 국내의 여러 생태계를 찾았고, 큐레이션을 통해 생태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음악을 만들었다.

‘자연(自然)’은 스스로 그러한 것을 뜻한다. 자연을 묵상하며 그 방향으로 시간을 채워 갈수록, 이들에게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어야 할 모습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변해 가는 것들.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무수히 교차하는 우연과 필연, 뒤엉킨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속의 우리를 음악으로 옮겨내었다. 숲의 초록빛 향기, 바다와 태양이 만드는 은빛 일렁임, 봄의 새소리, 여름이 담긴 매미의 노랫소리, 빌딩이 우거진 도시 숲 한가운데서 들어도 이 음악이 조화롭기를 바란다.

Credit

연출: 정승준
피아노·작곡: 이한빈
보이스·작사: 이한울
대금: 김태현
드럼: 박예담
부킹에이전시: 임하일
음향감독: 김준
영상감독: 이섭
조명감독: 정대원

무용 | Dance

음-파



- 👤 공연단체/아티스트 아하 무브먼트
- 📅 일정 10.15.(Thu) 18:30
- 📍 공연장소 국립중앙극장 달오름극장
- 🎫 티켓가격 서울아트마켓 등록자 무료 / 미등록자 공연당 10,000원
- 🕒 관람시간 전막 50분 / 쇼케이스 40분
- 👤 관람연령 7세 이상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휴식결핍사회에서 영감을 받은 <음-파>는 성취사회 속에서 과로를 마치 훈장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현대인의 심리적·사회적 압박을 집요하게 탐구합니다. 작품의 핵심 오브제인 '스타킹'은 신체를 압박하고 인지적 공간을 왜곡하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어 '현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형상화합니다. 이리저리 꼬이고 팽팽하게 조이는 압박 속에서 마침내 얼굴을 뚫고 나오는 탈출은 에고(Ego)를 벗어나 '진정한 심'으로 나아가는 처절한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감각적인 사운드와 조명, 그리고 스타킹에서 벗어나는 찰나 극장 전체에 퍼지는 은은한 꽃향기는 관객의 후각을 자극하며, 잊고 있었던 지금 이 순간의 '현존'을 마주하게 하는 다층적인 감각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음-파>는 심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은 단순한 멈춤이 아닌 온전한 현존에서 시작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Credit

안무·출연: 하지혜
출연: 민희정, 임예지, 안세영, 김가현, 김지연
음악감독: 김대희
기획: 강정환

음악 | Music

김이슬의 두 개의 소리



- 🎭 공연단체/아티스트 이슬뮤직
- 📅 일정 10.16. (Fri) 15:00
- 📍 공연장소 국립중앙극장 달오름극장
- 🎫 티켓가격 서울아트마켓 등록자 무료 / 미등록자 공연당 10,000원
- 🕒 관람시간 전막 70분 / 쇼케이스 40분
- 👤 관람연령 12세 이상

이번 쇼케이스는 작곡가 김이슬이 2017년부터 이어온 프로젝트 「두 개의 소리」의 주요 작품을 통해 경계에 선 존재의 감각과 개인의 기억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해금, 대금, 25현 가야금과 피아노를 비롯한 서양 악기가 함께하며, 작곡과 즉흥이 공존하는 유기적인 앙상블을 선보인다. 모든 연주자가 서로의 호흡을 예민하게 듣고 반응하며 하나의 소리를 완성해 가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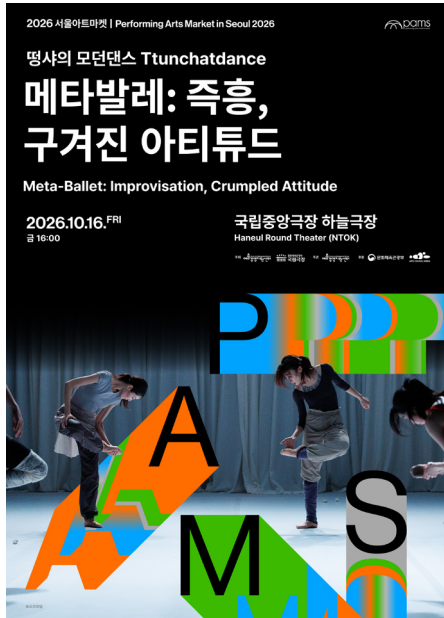
대표작 「이방인」은 문화적 이동 속에서 느낀 낯센과 그리움을 담아내고, 신작 「수림여인숙」은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와 함께 작곡가의 출생에 얽힌 기억과 상처를 음악으로 풀어낸다. 또한 「연」은 처염상정(處染常淨)의 의미를 바탕으로 삶의 굴곡 속에서도 본연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노래한다. 개인의 서사는 다양한 악기의 음색과 즉흥적 상호작용을 통해 보편적인 공감과 위로로 확장된다.

Credit

연출·출연: 김이슬
출연: 소명진, 배주휘, 김인영, 이재원, 박동석, 전영은, 김욱, 박순아
무대감독: 김동영
조명감독: 강상민
음향감독: 이지영

무용 | Dance

메타발레: 즉흥, 구겨진 아티튜드



- 🎭 공연단체/아티스트 명사의 모던댄스
- 📅 일정 10.16. (Fri) 16:00
- 📍 공연장소 국립중앙극장 하늘극장
- 🎫 티켓가격 서울아트마켓 등록자 무료 / 미등록자 공연당 10,000원
- 🕒 관람시간 전막 60분 / 쇼케이스 40분
- 👤 관람연령 7세 이상

〈메타발레: 즉흥, 구겨진 아티튜드〉는 발레리나가 주체가 되는 움직임의 충동을 탐구한다. 발레를 체화한 몸에서 비롯된 춤은 과연 발레의 경계 안과 밖 어디쯤을 배회하게 될까. 작품은 발레의 엄격한 규율과 즉흥의 충동이 충돌하는 지점을 따라가며, 발레 동작 '아티튜드(Attitude)'가 구겨지는 순간, 곧 발레의 내제된 '태도'가 새롭게 재정립되는 장면을 드러낸다. 한편, 한국의 발레 무용수들이 자신의 몸과 목소리로 발화하는 이 작업은 서구 중심의 발레 담론을 넘어 지금-여기의 몸으로 발레를 새롭게 사유하도록 이끈다.

Credit

안무: 윤상은
음악: 한정원
드라마터그: 이민진
퍼포머: 고혜주, 김민수, 김소혜, 임언주
무대디자인: 조경재
조명디자인: 서가영
홍보매니저: 손예운
무대감독: 서현진
행정: 이보휘

[안트로폴리스 III] 오이디푸스



- ♫ 공연단체/아티스트 국립극단
- 📅 일정 9.24.(Thu)~10.18.(Sun) 평일 19:30 / 토·일·공휴일 15:00 (화 공연 없음, 일부 예외 회차 있음)
-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 티켓가격 R 60,000원 / S 45,000원 / A 30,000원
- 🕒 관람시간 120분
- 👤 관람연령 16세 이상 관람가



국립극단

관객과 평단이 주목한 '안트로폴리스' 5부작의 세 번째 이야기. 비극의 영웅 오이디푸스를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만난다. 강량원 연출은 운명과 진실을 향해 나아가던 익숙한 오이디푸스를 넘어,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다시 그려낸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며 예언을 실현한 오이디푸스 앞에서, 전염병이 휩쓴 도시와 점차 드러나는 진실은 정체성·권력·책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Credit

작: 소포클레스, 롤란트 싹멜페니히

연출: 강량원

번역: 송전

각색: 정진새

드라마투르기: 우연

무대미술: 임일진

조명: 최보윤

의상: 오수현

분장: 이지연

소품: 윤미연

음악: 정재일

음향: 안세운

영상: 이태석

안무: 노경애

조연출: 박효진

제작진행: 송민희

출연: 강세웅, 김문희, 김석주, 김신효, 김정아, 김진복, 배선희, 신소영, 유은숙, 이재호, 조성윤, 조의진, 최호영

더블빌: 시나위



- 👤 **공연단체/아티스트** 국립무용단
- 📅 **일정** 10.8.(Thu) 19:30 / 10.9.(Fri)~10.11.(Sun) 15:00
-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 **티켓가격** VIP 70,000원 / R 50,000원 / S 30,000원 / A 20,000원
- 🕒 **관람시간** 90분(휴식 20분 포함)
- 👤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립극장

2026년 10월, 세대와 감각이 교차하는 시대의 춤판이 열린다. 하나의 시나위에서 출발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무대가 펼쳐진다.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온 국립무용단은 세대를 대표하는 안무가 배정혜와 배진호와 함께 전통음악 '시나위'를 각기 다른 시대의 감각으로 담아낸다. 배정혜는 깊은 호흡과 연륜이 강점인 국립무용단(NDCK) I 과 <살풀이 生>을, 배진호는 날렵한 움직임과 에너지의 국립무용단(NDCK) II 와 <AHRA>를 선보이며 한국춤의 영역을 확장한다.

Credit

<살풀이 生>

안무: 배정혜
조안무: 장혜림
작곡·음악감독: 원일
무대디자인: 김종석
작화디자인: 김유리
의상디자인: 배경술
조명디자인: 원재성
음향디자인: 이재식
분장디자인: 박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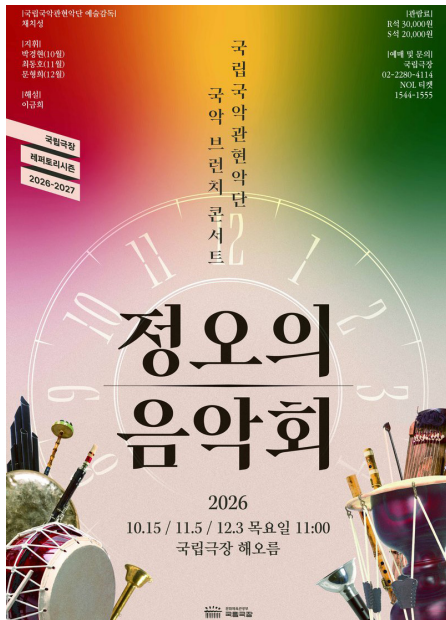
출연: NDCK I / 윤성철, 정관영, 정길만, 이세범, 조용진, 이석준, 김현숙, 김현주, 김원정, 장현수, 김미애, 김은영, 김영미, 문지애, 정세영, 정소연, 이윤정, 정현숙, 김은이, 김희정, 박미영, 장윤나, 전정아, 이민영, 조현주, 이의영, 박지은, 송지영

<AHRA>

안무: 배진호
조안무: 박선화
작곡·음악감독: 정도윤, 유재영
무대디자인: 김종석
의상디자인: 최인숙
조명디자인: 이정윤
음향디자인: 이재식
분장디자인: 박효정
리허설 어시스턴트: 유재성

출연: NDCK II / 황태인, 박준명, 이도윤, 강대현, 박준엽, 서상원, 이승찬, 박혜지, 이요음, 박소영, 이재인, 김나형, 이승연

정오의 음악회



- 👤 **공연단체/아티스트** 국립국악관현악단
- 📅 **일정** 10.15.(Thu) 11:00
-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 **티켓가격** R 30,000원 / S 20,000원
- ⌚ **관람시간** 70분(휴식 없음)
- 👤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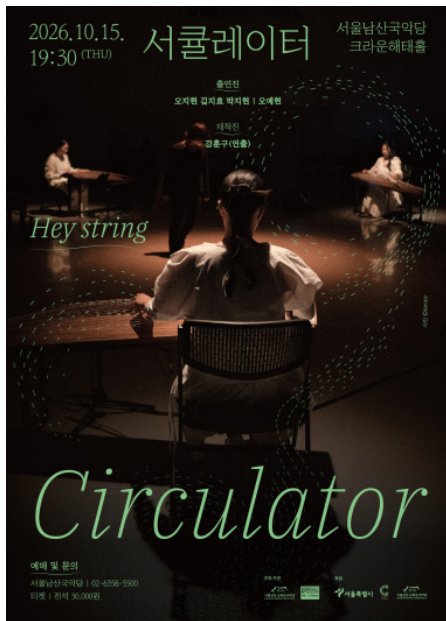
국립국악장

정오의 햇살처럼 따스함이 스며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 마티네 콘서트. 편안하고 유쾌한 이금희 아나운서의 진행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다채로운 음악이 정오의 시간을 채운다. 매회 새로운 주제와 협연자가 함께하며 국악을 친근하게 풀어내고, 복잡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남산의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선율로 일상에 감성을 더한다. 10월 공연에서는 지휘 박경현, 노래 협연 해바라기, 타악 협연 연제호가 함께한다.

Credit

지휘: 박경현
해설: 이금희
노래·협연: 해바라기

서큘레이터



- 🎭 공연단체/아티스트 Hey string
- 📅 일정 10.15.(Thu) 19:30
- 📍 공연장소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 🎫 티켓가격 전석 30,000원
- 🕒 관람시간 60분
- 👤 관람연령 7세 이상



서울남산
국악당

'나의 삶을 이룩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남겨질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을 바라보며 인간 역시 그 사이클 안에 놓여 있음을 생각하고, 음악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 관객 저마다의 감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간다. Hey String은 전통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가야금 중심의 앙상블을 선보이며, 오지현·김지효·박지현 세 멤버가 리듬과 공백, 현과 나무의 울림을 활용해 한국 전통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Credit

연출: 강훈구
출연: 오지현, 김지효, 박지현, 오예현

고사리소리 (GOSARISORI)



- 🎭 공연단체/아티스트 리퀴드 사운드 x 아펠레타(A Filetta)
- 📅 일정 10.18.(Sun) 17:00
- 📍 공연장소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 🎫 티켓가격 전석 30,000원
- 🕒 관람시간 약 70분
- 👤 관람연령 7세 이상



서울남산
국악당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해 온 리퀴드사운드와 프랑스 코르시카의 전통 다성음악 단체 A Filetta가 함께하는 국제 예술교류 프로젝트다. 한국의 판소리·서도민요와 코르시카의 파지엘라(Paghjella)가 만나, 가장 원초적인 악기인 인간의 목소리가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관객에게 감각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두 단체는 단순히 서로의 소리를 병렬적으로 섞기보다 발성법과 시김새 등 양국 전통 성악의 핵심 어법을 교류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몸에서 울리는 깊은 진동과 공명에 집중해 공동창작을 이어간다.

Credit

예술감독·연출: 이인보
음악감독·작곡: 시울
프로덕션·운영: 김주리(Kollab), Valerie Salducci, Laura Giansily
아티스트: A Filetta, Jean-Claude Acquaviva, Francois Aragni, Jean-Do Bianco, Petr Antò Casta, Paul Giansily, Jean-Vincent Servetto, Maxime Vuillamier, 권송희, 김유리
음향감독: Anouar Benali
조명감독: 조철민
그래픽디자인: 센터코퍼레이션
주최·주관: 리퀴드사운드
공동기획: 서울남산국악당
협력: A Filetta, Kollab, 국악방송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서울시
컬처브릿지

그의 하루



- 🎭 공연단체/아티스트 부산문화회관 / 강북문화재단
- 📅 일정 10.14.(Wed) 19:30 / 10.15.(Thu) 19:30
- 📍 공연장소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
- 🎫 티켓가격 무료
- 🕒 관람시간 65분
- 👤 관람연령 12세 이상



강북
문화재단

반복되는 면접과 취업 준비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청년 '그'. 고단한 그의 하루는 오늘도 계속된다. 부산의 청년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인형극 <그의 하루>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춘의 오늘을 바라보며,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되돌아본다. 일상과 닮은 이야기를 통해 지친 오늘을 조용히 위로하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건넨다.

Credit

작·예술감독: 조현산
연출: 황승현
미술감독: 류지연
조명디자인: 김건영
음악: 정재환
의상: 조경희
안무: Denis(이재명)
인형지도: 김양희
조연출: 최다솔

현대무용 | Contemporary Dance

몸·균·살 : 아직 마르지 않았다



- 🎭 공연단체/아티스트 국립현대무용단
- 📅 일정 10.16. (Fri) 12:00~13:30
- 📍 공연장소 국립예술단체연합회 현대무용 스튜디오
- 🎫 티켓가격 사전 신청(RSVP) 프로그램
- ⌚ 관람시간 90분(Showcase, Pitching)
- 😊 관람연령 8세 이상



연극 | Theatre

사이의 거리



- 👤 **공연단체/아티스트** 티아고 호드리게즈
- 📅 **일정** 10.8.(Thu) 19:30 / 10.9.(Fri) 15:00 / 10.10.(Sat) 15:00
- 📍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 **티켓가격** R 65,000원 S 40,000원
- 🕒 **관람시간** 85분
- 👥 **관람연령** 만 13세(중학생) 이상



아르코·대극로
예술극장

인터파크
예술극장

〈사이의 거리〉는 2077년, 지구와 화성으로 나뉘어 살아가는 인류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경제적 불안정과 기후변화의 여파로 인류가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일부는 화성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지구에 남은 한 아버지는 화성으로 떠난 딸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쓴다. 공연은 두 행성을 오가는 먼 거리의 음성 메시지를 통해, 서로 닿을 수 없는 공간에 놓인 두 사람의 관계를 섬세하게 따라간다.

작품은 광활한 우주 속에 놓인 하나의 미니어처와도 같다. 티아고 호드리게즈는 디스토피아적이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미래를 통해, 우리의 선택이 남길 흔적을 비추는 동시에 서로 다른 세대 간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구와 화성, 마주 선 두 세계는 아득한 장거리 교신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아버지와 딸은 각자의 궤도를 도는 두 천체처럼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한다.

Credit

출연: 엘리스 드상, 아다마 디오프 / **텍스트·연출:** 티아고 호드리게즈 / **번역:** 토마스 레젠드 / **영어 자막 번역:** 다니엘 한 / **무대미술:** 페르난두 히베이루 / **의상:** 조제 안토니우 테넨트 / **조명:** 후이 몬테이루 / **음악·음향:** 페드루 코스타 / **예술협력:** 소피 브리케르 / **조연출:** 앙드레 파토 / **연출 인턴:** 토마스 메디오니 / **제작:** 아비뇽 페스티벌 / **공동제작:** Teatro stabile di Napoli Teatro Nazionale(나폴리), Onassis Stegi(아테네), La Comédie de Clermont-Ferrand Scène nationale, Divadlo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폴젠), Le Volcan Scène nationale du Havre, Teatre Lliure(바르셀로나), Centro Dramatico Nacional(마드리드), Malakoff Scène nationale Théâtre 71, Culturgest(리스본), De Singel(안트베르펜), Équinoxe Scène nationale de Châteauroux, Points communs Nouvelle Scène nationale de Cergy-Pontoise / Val d'Oise, Piccolo Teatro di Milano Teatro d'Europa(밀라노), Maillon Théâtre de Strasbourg Scène européenne, NTCH(국가양청원), Les Célestins Théâtre de Lyon, Théâtre du Bois de l'Aune(엑상프로방스), Théâtre de Grasse Scène conventionnée d'intérêt national Art & Création, Scènes et Cinés Scène conventionnée d'intérêt national Art en territoire(이스트르), Le Bateau Feu Scène nationale de Dunkerque, Plovdiv Drama Theatre, Malta Festival(포즈난), Espace 1789(생투앙) / **후원:** TNB 국립브르타뉴극장 연구학교(렌)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 **무대 제작:** 아비뇽 페스티벌 공방 / **레지던시:** 아비뇽 페스티벌 라 파브리카 / **감사의 말:** 베르대학교 행성과학 박사과정 연구자이자 ExoMars 미션 CaSSIS 팀 멤버인 마리 아제베두, 마그다 비자로, 베아트리스 호드리게스, 아비뇽 페스티벌 팀, 오데옹-유럽극장(파리). 본 공연에는 카에타누 벨로주의 노래 "Sonhos"가 포함되어 있음 / **초연:** 제79회 아비뇽 페스티벌(L'Autre Scène du Grand Avignon(베넬), 2025.7.7)

연극 | Theatre

루만



- 👤 공연단체/아티스트 플뢰르 엘리스 노블
- 📅 일정 10.8.(Thu) 19:30 / 10.9.(Fri) 14:00, 18:00
- 📍 공연장소 대학로극장 퀴드
- 🎫 티켓가격 균일석 40,000원
- ⌚ 관람시간 50분
- 👥 관람연령 만 16세(고등학생) 이상



인터파크

<루만>은 플뢰르 엘리스 노블(Fleur Elise Noble)이 선보이는 비주얼 퍼포먼스로, 인형극과 프로젝션, 드로잉, 무용, 라이브 음악이 결합된 융복합 무대다. 거대한 3차원 종이 세트 위에서 펼쳐지는 애니메이션 세계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현된 홀로그램과 정교하게 구성된 입체 그림책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객을 생동감 넘치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끈다. 자메이카계 캐나다 출신 싱어 사라 리드(Sarah Reid)의 라이브 음악은 이 공간에 또 하나의 숨결을 더한다.

작품은 낭만과 환상, 그리고 행복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따라간다. 꿈속에서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캥거루 인간 '루만'을 만나 매혹된 한 소녀는 그의 세계에 동화되려는 강한 집착으로 점차 깊은 내면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 과정은 로맨스와 판타지 뒤편에 자리한 인간 욕망의 어두운 층위를 드러낸다.

<루만>은 꿈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상과 욕망이 인간을 어디까지 이끄는지를 강렬하게 그려낸다. 동시에 마침내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되묻는 작품이다.

Credit

창작·연출·디자인·기획·무용·드로잉·애니메이션·퍼포먼스·인형 제작·프로젝션 아티스트: 플뢰르 엘리스 노블 / 영상 캐릭터: 플뢰르 엘리스 노블, 사라 리드 / 음악 디자인: 미시 멜 페사 / 협력 퍼포머: 다니엘 펠스 / 협력 작가: 연주자: 자카리아 필딩, 사라 리드, 팀 베넷, 피터 나이트, 말 웹, 미시 멜 페사(AKA 멜비언트), 오피우오 / 애니메이터: 팀 베넷, 이소벨 놀스 / 의상 제작: 브라이오니 앤더슨, 카시아 톤스, 사라 야엘/릴리 카스텔 / 협력 무용수: 다니엘 펠스, 사라 리드, 잭 래드, 티나 토라비, 헬렌 스미스, 알라나 호가트, 애덤 포브스, 팀 베넷, 루비 래드, 클레어 맥도널드, 톰 갈라리언, 가브리엘 뉴, 피에르 프로스케, 토니 마틴, 미시 버치, 잭 투어헤일, 조너선 반 두진, 마타이스 빌 리트벨트, 팔코 아라 마카오, 말린-잭 멜리스, 에밀리아 비커다이크, 로이 창, 올라나 쇼어 / 감사의 말: Arts SA, Australia Council, Arts House, Coopers Malthouse Theatre, Windmill Theatre, Arts QLD, WOMADelaide, 멜 캔트웰 / Perth Theatre Company, 다니엘 펠스, 루시 스콧, 루비 래드, 잭 래드, 조지 더 맨, 카시아 톤스, 존 필리, 아드리아나 나바로, 피터 스태퍼드, 키즈 듀이비스 / 투어링 컴퍼니 / 리드 아티스트: 플뢰르 엘리스 노블 / 무대 제작: 토니 마틴 / 파포머·그림자 인형 조종: 루이즈 하트, 산타 로버츠, 토니 마틴 / 프로덕션 매니저·오퍼레이터: 니콜로 갈리오 / 프로듀서·투어 매니저: 스텔라 웹스터, 인사이트 아트 / 후원: 본 프로젝트는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와 크리에이트 SA(Create SA)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녀의 2차원적 삶



- 👤 공연단체/아티스트 플뢰르 엘리스 노블
- 📅 일정 10.10.(Sat) 19:30 / 10.11.(Sun) 14:00, 18:00
- 📍 공연장소 대학로극장 퀴드
- 🎫 티켓가격 균일석 40,000원
- ⌚ 관람시간 45분
- 👥 관람연령 만 13세(중학생) 이상



인터파크

〈그녀의 2차원적 삶〉은 드로잉과 애니메이션, 인형극, 프로젝션, 종이 오브제를 결합한 독창적인 퍼포먼스 작품이다.

한 예술가의 작업실을 배경으로, 멈춰 있고 평면적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새로운 존재로 깨어나는 상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녀의 드로잉은 스스로 증식하고 표면 위를 떠돌며, 2차원과 3차원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어느덧 창조된 세계는 창작자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점차 흐려진다. 마침내 무엇이든 가능해진 세계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마법 같은 순간들이 펼쳐진다.

환상적인 무대 언어와 재치 있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2010년 그린룸 어워드 비디오 디자인 부문과 2008년 브리즈번 페스티벌 최고작품상을 수상하며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이고 유쾌한 공연이다.

Credit

창작·연출·디자인·상상·드로잉·애니메이션·퍼포먼스·인형
 제작·프로젝션: 플뢰르 엘리스 노블
 사운드 아티스트: 제러미 나이덱
 인형 조종: 루이즈 하트
 프로덕션 매니저·오퍼레이터: 니콜로 갈리오
 프로듀서·투어 매니저: 스텔라 웨스터, 인사이트 아트
 후원: 본 프로젝트는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와 크리에이트 SA(Create SA)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작품은 에리카 필드, 제러미 나이덱, 루 하트, 산타 로버츠, 나이절·로빈 맥브라이드, Allan Smith/Gibson Group, Adelaide Central School of Art, Arts SA, South Australian Youth Arts Board, Arts QLD, Metro Arts의 도움으로 창작되었습니다.

건져올렸지만 가라앉으려는 경향



- 👤 공연단체/아티스트 바리나모 BARINAMO
- 📅 일정 10.9.(Fri) 16:00 / 10.10.(Sat) 16:00
- 📍 공연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 티켓가격 균일석 40,000원
- 🕒 관람시간 100분
- 👤 관람연령 만 13세(중학생) 이상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인터파크

〈건져올렸지만 가라앉으려는 경향〉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견고한 흐름에 질문을 던지며, 그 어떤 주된 경향도 존재하지 않는 다주체(多主體)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 다섯 명의 퍼포머는 몸의 내적 인지와 외적 표현, 춤과 일상, 소리와 음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가로지른다. 춤과 연기, 악기 연주와 보이스, 텍스트 낭독을 넘나드는 이들의 역동적인 수행은 무대 위에 정형화된 해석의 틀을 끊임없이 해체한다.

이 작업에서 퍼포머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시간 속에서 존재하려고 하거나, 오브제와 새롭게 관계 맺으려는 시도로부터 춤추고 연주하려는 '어떠한 상태' 그 자체가 된다. 텍스트가 가진 고정된 의미를 지우려는 시도, 극장이라는 시공간의 모든 현상을 살아있는 주체로 마주하는 이 과정은, 장면을 하나의 의미로 가두지 않는 해방된 경험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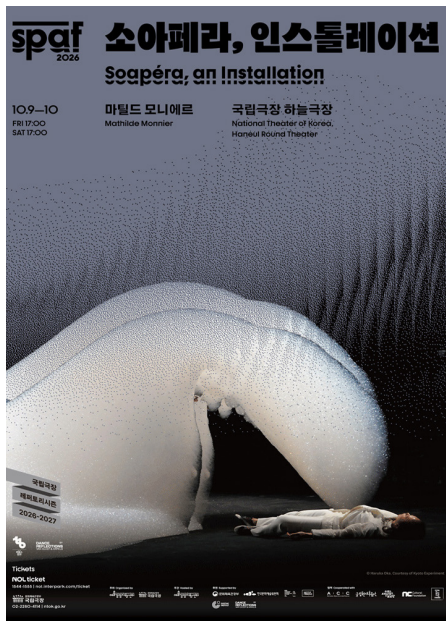
끊임없이 유동하고 소멸하는 시공간 속에서, 세상을 이루는 형상은 결코 고정되거나 독점될 수 없다. 작품은 모든 존재가 관계와 변화 속에서 비로소 생성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관객들은 하나로 묶이지 않고 흘러가는 표현들의 한복판을 통과하며, 끝내 박제되거나 소유될 수 없는 세계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Credit

연출: 주나모
 드라마터그: 김바리
 창작 출연: 강진안, 김바리, 오설영, 이선시, 천영돈
 음악감독: 김대희
 의상: 송연자
 조명디자이너: 김병구
 무대감독: 김인성
 음향감독: 허선영
 프로듀서: 이보라미

무용 | Dance

소아페라, 인스톨레이션



- 👤 **공연단체/아티스트** 마틸드 모니에르
- 📅 **일정** 10.9.(Fri) 17:00 / 10.10.(Sat) 17:00
-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 🎫 **티켓가격** 균일석 50,000원
- ⌚ **관람시간** 45분
- 👥 **관람연령** 초등학교생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립극장



인터파크

찰나에 피어났다 사라지는 비눗방울과 거품, 그 덧없고 신비로운 물질에서 시작된 <소아페라, 인스톨레이션>은 퍼포먼스와 설치 미술의 경계를 환상적으로 허무는 작품이다.

공연이 시작되면 순백의 거품 세계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이는 마치 우주의 기원이나 달 위의 풍경을 마주한 듯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풍경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무용수들은 이 완벽한 거품의 세계에 몸짓을 더해 숨결을 불어넣으며 천사, 괴물, 유령과 같은 환영적인 존재들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시킨다. 이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거품 조형물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극이 전개될수록 이 경이로운 세계는 점차 형태를 감추고, 인간의 흔적과 오염으로 얼룩진 현대적 풍경으로 변모한다. 거품은 무대 위 오브제를 넘어 스스로 형태를 바꾸며 호흡하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배우가 된다. 무용수들은 거품과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돼 한몸처럼 움직이며 관객을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몽환적인 세계로 인도한다.

시적이고 무용적인 명상을 선사하는 <소아페라, 인스톨레이션>은 생성과 소멸의 순간을 탐구하며 깊은 예술적 매혹을 남긴다.

Credit

컨셉: 마틸드 모니에르, 도미니크 피가렐라
안무: 마틸드 모니에르
시각예술: 도미니크 피가렐라
출연: 비르질 다노, 티아고 그라나토, 린이팡, 조나탕 프랑라스-데쿠르
무대 협업: 아니 툴레데
사운드: 올리비에 르누프
조명 디자인: 에릭 뷔르츠
의상 제작: 로랑스 알키에
공동제작: 소아페라, 인스톨레이션
퐁피두센터 공연예술부, 몽펠리에
랑그도크루시옹 국립안무센터
공동제작: 소아페라 몽펠리에

댄스 페스티벌 2010, 퐁피두센터
공연예술부, 파리 가을축제,
컨슬러하우스 무존투름 프랑크푸르트
및 Tanzlabor_21, 몽펠리에
랑그도크루시옹 국립안무센터
지원: MM 컴퍼니는 오크시타니
지역 문화청(DRAC Occitanie)의
지원을 받음. 도미니크 피가렐라의
작품은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공공미술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문화예술창작총국과
랑그도크루시옹 지역 문화청의 지원을
받아 실현되었다.

음악극 | Music Theatre

화성학 실습



- 👤 공연단체/아티스트 이엠티 EMT
- 📅 일정 10.9.(Fri) 19:00 / 10.10.(Sat) 14:00, 18:00
- 📍 공연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 티켓가격 R 60,000원 S 40,000원
- 🕒 관람시간 90분
- 👥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립극장



인터파크

퍼포먼스 음악극 <화성학 실습>은 음악의 기초 이론인 '화성학(harmony)'을 통해 공동체의 조화란 무엇인지 질문한다. 연극, 무용, 음악, 미디어아트가 결합한 다감각적인(multisensory) 화성학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는 오늘날, 김재훈과 동료들은 화성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질문한다. "우리는 화음처럼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무대에 등장한 배우는 '튜터(Tutor)'의 안내에 따라 화성학을 실습한다. 퍼포머들은 음악가들과 함께 이 오래된 음악 이론을 움직임과 소리로 풀어낸다. 화음은 다양한 색과 형태로 구현된 '음 오브제'로 보여지고 '오디블 트레드밀', '뉴 엘리펀트 첼로' 등 새롭게 만들어진 악기들이 관객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한다.

전 세계 음악 언어의 기준이 된 '평균율'이 만들어진 세계는 과연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왔는가. 이 공고한 조성 체계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되어 왔는가. <화성학 실습>은 다양한 소리가 채워지는 공연장에 관객들을 초대해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간다.

Credit

작/연출/음악: 김재훈
 드라마터그: 최유준
 조연출: 박현지, 서수빈
 안무/출연: 정수동
 출연: 이영은, 임소정, 정건, 정한별
 연주: 김재원, 이희명, 박은서, 백민아, 배성우, 이채영, 방준성, 김주빈
 나레이션: 나경민
 무대감독: 곽용민
 무대 디자인: 김윤지
 무대 제작: 전진
 조명 디자인: 고민주
 조명팀장: 박경진
 영상 디자인: 이화승

프로젝션 디자인: 이건우
 음향팀: 안세운, 강보연, 서최선
 사운드 디자인: 남상봉, 김세하
 음악팀: 김주빈, 방준성, 서상재, 이채영
 오브제 디자인: 김윤지, 정다혜
 오브제 제작: 최세현
 의상 디자인: 양준환
 그래픽 디자인: 김기조
 포토그래퍼: 채드박
 액팅코치: 나경민
 보조 프로듀서: 박기웅
 프로듀서: 이애리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25-26
 협력예술가: 김재훈

낭독극 | Staged Reading

새



- 👤 **공연단체/아티스트** 한강, 줄리 델리케, 이자벨 위페르, 그리고 이혜영
- 🎭 **일정** 10.10.(Sat) 19:30 / 10.11.(Sun) 17:00
- 📍 **공연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 🎫 **티켓가격** 균일석 70,000원
- 🕒 **관람시간** 90분
- 👥 **관람연령** 만 16세(고등학생) 이상



NOL 티켓

『작별하지 않는다』 제1장 <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 가운데 하나인 제주4·3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줄리 델리케는 이 장을 낭독공연 형식으로 무대에 옮기며, 한강의 문장을 배우들의 목소리로 펼쳐낸다.

어느 겨울 아침, 경하는 제주에 사는 친구 인선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는다. 본토의 병원에 입원한 인선은 집에 홀로 남겨둔 작은 흰색 잉꼬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고, 경하는 폭설을 뚫고 제주로 향한다. 그러나 새를 돌보기 위한 여정은 곧 인선 가족의 기억을 따라 제주4·3의 비극과 마주하는 길이 된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이혜영은 한강의 문장을 낭독하며 역사의 시간을 무대 위로 불러낸다. 역사가 남긴 상처와 존재의 연약함, 그리고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두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전해진다.

Credit

출연: 이자벨 위페르, 이혜영
원작: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텍스트: 한강
프랑스어 번역: 최균란, 피에르 비지우
영어 번역: 이예원, 페이지 아니야 모리스
낭독 연출 및 드라마투르기: 줄리

델리케
드라마투르기 및 예술 협력: 이나벨 시몽
조명: 비아라 스테파노바
음향: 루카 르리에브르
제작: 아비뇽 페스티벌
협력: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공연 파트너: 프랑스 미디어 몽드

씨름



- 👤 **공연단체/아티스트** 모든 컴퍼니 MODEUN COMPANY
- 🎫 **일정** 10.14.(Wed) 20:00 / 10.15.(Thu) 20:00
- 📍 **공연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 🎫 **티켓가격** 균일석 40,000원
- ⌚ **관람시간** 70분
-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인터파크

〈씨름〉은 한국의 전통 스포츠 씨름을 신체 움직임과 영상, 기록, 관객의 참여가 결합된 동시대 공연예술로 확장한 작품이다.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에서 출발해, 그림 속 씨름판을 역동하는 몸과 호흡이 살아 있는 오늘의 무대로 불러낸다.

무용수들은 실제 씨름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서로를 밀고, 버티고, 당기고, 기대며 힘의 균형을 끊임없이 바꾼다. 맞선 몸들 사이로 승부의 긴장과 상대를 통해 유지되는 관계,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난다.

옛이미지와 기록, 인터뷰는 씨름판 위의 몸들과 교차하고, 실시간 카메라는 무대와 객석 사이를 오가며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관객의 호흡과 환호가 더해질 때, 극장은 마침내 하나의 살아 있는 ‘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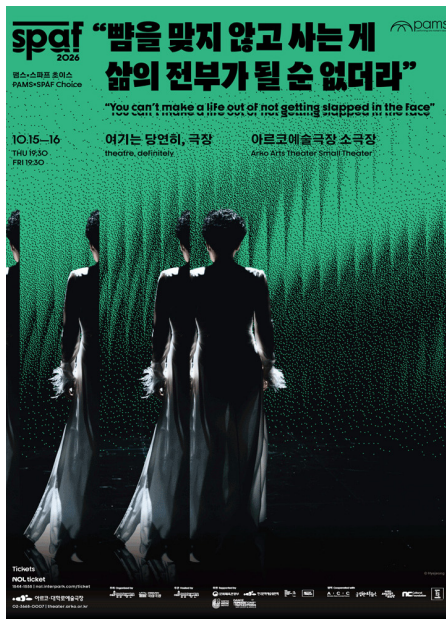
〈씨름〉은 승패를 넘어, 밀려나면서도 버티고 서로에게 기대어 다시 일어서는 우리 시대의 몸과 삶을 이야기한다.

Credit

안무·연출: 김모든
구성·리서치: 전강희
출연: 강성룡, 김도현, 김현진,
노은희, 박서현, 이어진
음악 감독: 최혜원
미디어아트: 이뿌리
무대 디자인: 정승준
조명 디자인: 김경호
무대 감독: 조은진

음향 감독: 김태연
의상 디자인: 최인숙
영상 시스템: 월유엔터테인먼트
티저·영상기록: 연두 픽처스
사진 작가: 최근우
그래픽 디자인: 이한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예은,
김하은, 최유진
국제 협력: 임현진

“뺨을 맞지 않고 사는 게 삶의 전부가 될 순 없더라”



- 👤 **공연단체/아티스트** 여기는 당연히, 극장 theatre, definitely
- 📅 **일정** 10.15.(Thu) 19:30 / 10.16.(Fri) 19:30
- 📍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 **티켓가격** 균일석 40,000원
- ⌚ **관람시간** 95분
- 👥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교) 이상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인터파크
예술극장

〈“뺨을 맞지 않고 사는 게 삶의 전부가 될 순 없더라”〉는 1957년생 1세대 트랜스젠더 여성 ‘색자’의 실제 삶과 한국 퀴어 공동체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공연이다. 미군 주둔, 군사독재, 성산업, HIV/AIDS 위기 등 한국 현대사의 폭력 속에서 형성된 몸의 역사를 무대 위에서 직접 증언한다. 색자는 폭력의 시간을 통과하며 무대와 삶을 함께 구축해 왔고, 상실과 영광의 경험을 겹쳐왔다. 1990년대 이후 변화하는 동아시아 퀴어 정치 속에서 그는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을 이어간다.

공연은 색자의 현재를 유머와 쇼, 증언의 형식으로 풀어낸다. 중학교 시절 가출 이후 파고다 극장, 돈암동 여관방, 이태원, 일본에 이르는 시간까지, 색자의 몸은 한국 현대사와 퀴어 역사를 관통하는 아카이브로 기능한다.

작품은 무대와 현실의 경계를 흔들며 개인의 회고를 넘어 집단적 역사와 생존의 기억을 호출한다. 폭력과 낙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존재의 몸을 통해, 한국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역사와 생존, 연대의 기억을 살아 있는 목소리로 드러낸다.

Credit

글: 색자, 구자혜

출연: 색자

연출, 프롬프터: 구자혜

연출부: 전박찬

프로듀서: 김진이

드라마터그: 루인

무대 감독: 이효진

시노그래피: 김주슬기

사운드: 묵소

오퍼레이팅: 류혜영, 김주슬기

안무 코칭: 최기섭

수어 통역: 남진영

한국어 문자통역: 장정수

영어 자막 제작: 임민정

사진: 혜정

기록 영상: 유니온씨

번역: 문호영

무용 | Dance

히히히스토리



- 👤 공연단체/아티스트 황수현
- 🎵 일정 10.15.(Thu) 19:30 / 10.16.(Fri) 19:30 / 10.17.(Sat) 15:00
- 📍 공연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 티켓가격 균일석 40,000원
- ⌚ 관람시간 60분
- 👥 관람연령 15세 이상 관람가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NOL 티켓

<히히히스토리>는 움직임과 소리, 말을 다루는 1인 라이브 퍼포먼스다. 무대 위 '황수현'은 말하고, 춤추고, 노래하지만, 결코 하나의 인물이나 완결된 서사로 고정되지 않는다. 말은 고백처럼 시작되지만, 설명으로 닫히지 않고, 춤은 이미지로 완성되지 않으며, 노래는 안정된 리듬에 도달하지 않는다. 분명한 형태로 향하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이 행위들은 기존의 질서 안에서 매끄럽게 설명되지 않는 감각의 상태를 집요하게 따라간다.

제목의 '히히히'는 진지한 말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 새어 나오는 헛웃음이자, 무언가 스며 나오는 스산한 기척의 소리다. 이 정체 모를 소리는 공연의 표면에 작은 균열을 내고 흐름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비틀어버린다.

그 과정에서 뒤섞이는 질감과 리듬, 파동은 관객을 익숙하지 않은 감각의 서사로 이끈다. 작품은 그렇게 아직 이름 붙지 않은 감각의 자리를 탐색하며, 매끄러운 미래가 지워버린 감각을 어긋난 몸으로 다시 호출한다.

Credit

컨셉·안무·출연: 황수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박지선
조안무: 강호정
음악: 김현수
조명: 공연화
음향: 우경민, 천준하
무대감독: 김응완, 이율
조명 프로그래머: 김재준
조명팀: 구한솔, 두지영, 맹우영, 박소은, 배준서, 정현욱

다원 | Multidisciplinary

블러: 경계가 흐려질 때



- ♫ **공연단체/아티스트** 리버베드 시어터, PHI 스튜디오, 오나시스 컬처
- 🎵 **일정** 10.16.(Fri) 13:30, 14:30, 15:30, 16:30, 18:30, 19:30, 20:30 / 10.17.(Sat) 13:30, 14:30, 15:30, 16:30, 18:30, 19:30, 20:30
- 📍 **공연장소** 대학로극장 퀴드
- 🎫 **티켓가격** 균일석 50,000원
- 🕒 **관람시간** 45분
- 👤 **관람연령** 만 16세(고등학생) 이상



인터파크

<블러: 경계가 흐려질 때>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확장현실(XR) 몰입형 연극이다. 작품은 "만약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삶과 죽음, 사실과 허구의 경계에 놓인 존재의 상태를 탐구한다.

우리는 복제 기술과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자연의 질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뒤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부활 생물학(resurrection biology)'이나 '멸종 복원(de-extinction)'과 같은 개념은 더 이상 공상과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죽음이 삶의 영원한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 현실과 허구 사이의 모호한 경계 상태를 파고드는 이 작품은 관객을 초현실적인 세계로 초대한다. 실제 퍼포머의 생생한 신체성과 가상현실(VR)이 결합된 무대 위에서, 관객은 눈앞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풍경 속을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기술의 발전이 열어젖히는 경이로운 가능성, 그 이면에 잠재된 서늘한 대가들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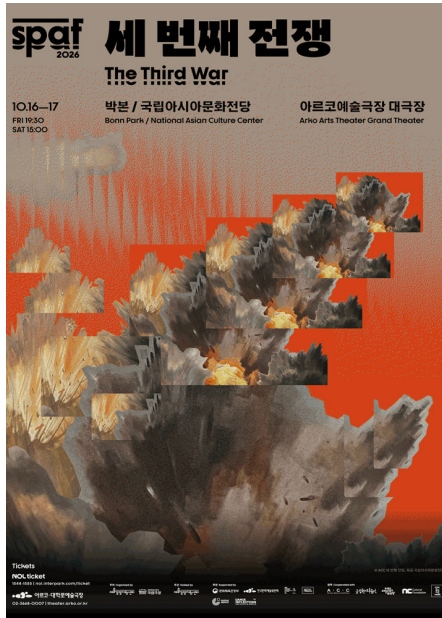
미래는 이미 도착해 있다. 이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보라.

Credit

연출·극작: 크레이그 쿠인테로, 피비 그린버그 / **프로듀서:** 쉰링 예, 콜린 델베르, 줄리 트렘블레이, 프로도로모스 치아보스 / **출연:** 위선 위, 이취안 천, 메이춘 샹, 닝 창, 시아즈 린, 피비 그린버그, 신치 천 외 / **테크니컬 마스터:** 칭치 양 / **무대 감독:** 찰런 차이, 보찬 정 / **무대 기술감독:** 치천 쉬 / **인터랙티브 개발:** PHI Studio / **크리에이티브 개발:** 토마 아주그, 에두아르 랑토-브누아, 오렐 샤날 / **이미지브 시어터 디자인:** 리버베드 시어터 / **무대 디자인:** 크레이그 쿠인테로, 칼 존슨 / **음악:** 위천 왕 / **사운드 디자인:** 친룬 카오 / **FMOD 통합:** 보이 우 / **안무 지원:** 에두아르 록 / **시각 경험 슈퍼바이저:** 멜라니 쿠르티나 / **3D 애셋, 환경 및 VFX:** Behaviour Interactive / **360° 촬영:** Funique VR / **모션 캡처:** LAB 7 & Game On / **볼류메트릭 캡처:** IP LAB. 볼류메트릭 캡처는 4DViews의 HOLOSYS로 제작되었습니다. / **공동 제작:** Riverbed Theatre, PHI Studio, Onassis Culture / **후원:** CMF, TAICCA, SODEC, Onassis Culture. 본 프로젝트는 TAICCA 국제 공동 펀딩 및 공동 제작을 위한 혁신 콘텐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공식 프레젠테이션 파트너:** National Theater & Concert Hall / **협력:** Taiwan Contemporary Cultural Lab(C-LAB), Hong Foundation / **투어 후원:**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NSFG Foundation, RSI Group, Puyong Archiland, Brandon Global Trading Company

오페라극 | Opera Theatre

세 번째 전쟁



- 🎭 공연단체/아티스트 박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일정 10.16.(Fri) 19:30 / 10.17.(Sat) 15:00
- 📍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 티켓가격 R 60,000원 S 40,000원
- ⌚ 관람시간 140분
- 👤 관람연령 만 13세(중학생) 이상



아르코·대극로
예술극장



인터파크
예술극장

〈세 번째 전쟁〉은 마법이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세 국가의 전쟁을 다룬다. 미디어가 부채질한 불안과 서사 속에서 긴 평화의 시간은 균열을 맞이하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점차 흐려진다.

작품은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전쟁을 재현하지 않는다. 무대 위에 펼쳐지는 것은 폭력의 사실적인 묘사가 아닌 전쟁을 둘러싼 이미지와 감각, 그리고 다양한 서사들이다. 연극과 음악, 노래, 무용, 합창이 어우러진 신비한 풍경은 오페라와 연극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장르적 가능성을 제안한다.

우리는 실제 전쟁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역사와 미디어, 이미지와 서사를 통해 구성된 파편들일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시점이 교차하는 무대 위에서, 관객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전쟁의 모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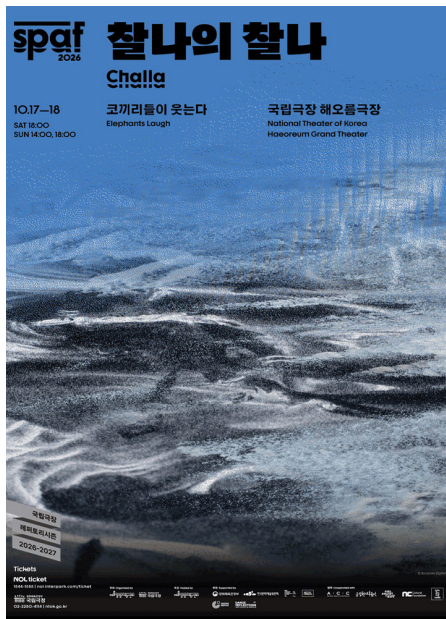
공연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균열이 일상이 된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가 '전쟁'이라 부르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현실을 살아가는 관객과 가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마주하는 이 여정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각과 선택을 환기하며 오늘날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할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첫 공동 제작으로 탄생한 〈세 번째 전쟁〉은 지난 2년간의 리서치와 과정공유를 거쳐 2026년 본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이번 협력의 첫 예술가로 선정된 박본은 독창적인 언어와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과 질문을 탐구해 온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다.

Credit

기획·제작: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극작·연출: 박본 / 작곡가: 벤 뢰슬러 / 드라마터그·번역: 이단비 / 지휘: 김성진 / 부지휘: 최정우 / 무대 디자인: 다니엘 소로주아 / 의상 디자인: 올리아 누스바우머 / 의상 소품·분장 디자인: 김종한 / 안무: 레베카 몬도비치 / 조연출·통역: 현림 / 음악 코치: 김성미 / 리허설 디렉터: 박선화 / 기술·무대감독: 김지영 / 무대 조감독: 김은비 / 조명디자인: 손민영 / 음향디자인: 나인권(ACC) / 의상 총괄 감독: 강기정 / 제작 총괄: 정승재(ACC) / 프로듀서: 양수연(ACC) / 운영 총괄: 최재희(JAM) / 프로젝트 매니저: 이성우 / 오페라 가수: 소프라노 임선혜, 메조소프라노 김하은, 테너 김효중, 베이스 바리톤 전태현 / 배우: 강애심, 아누팜 트리파티, 박소연, 위다나, 이송아, 이세준, 최아련 / 무용: 성승정, 박선화 / 합창단: 노이 오페라 코러스 / 오케스트라: 앙상블 블랭크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25-26 협력예술가 & 2026 아시아 극작가 프로젝트 참여 작가: 박본

찰나의 찰나



- 👤 공연단체/아티스트 코끼리들이 웃는다 Elephants Laugh
- 📅 일정 10.17.(Sat) 18:00 / 10.18.(Sun) 14:00, 18:00
-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 티켓가격 균일석 40,000원
- ⌚ 관람시간 70분
- 👥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립극장



인터파크

<찰나의 찰나>는 낯선 이와 모래를 매개로 말 없는 대화를 나누는 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갈까. 작품은 낯선 이와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섬세한 소통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

작품은 덴마크 예술가 헬레 호브(Helle Hove)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출발했다. 모래는 규정된 형태나 평가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유동하는 물질이다. 관객이 모래 위에 새긴 흔적은 상대의 흔적과 만나 섞이고, 예기치 못한 형태로 변화하다가 이내 소멸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깊은 비언어적 소통을 경험하며,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의 시공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순간, 소멸을 향해 흐르는 모래의 움직임은 관객을 오롯이 '지금, 여기'의 감각으로 이끈다. 놀이이자 명상이 되는 이 특별한 여정은, 역설적이게도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눈부신 찰나의 미학을 선사한다. 관객들은 형태가 지워지는 순간을 함께 통과하며, 우리가 잊고 있던 창조적 유희의 기쁨과 비로소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Credit

연출: 이진엽

공동연출: 헬레 호브

퍼포먼스 디자이너: 샘 트루브리지

퍼포머: 서현성, 바돌 압둘라

조명 디자이너: 정하영

(Stageworks)

음악감독: 오로민경

라이브 사운드·디자이너: 조지훈

음향감독: 안세운, 강보연

의상디자이너: 김경민

모래낙하 메커니즘 프로토타입: 샘

존스톤, YooCrew Ltd

모래낙하 메커니즘 최종 설계 및

개발: 마린보이(이성형)

무대감독: 김성덕

기획 개발 프로듀서: 이호연

제작 프로듀서: 최봉민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22-24

협력예술가: 이진엽



국립극장



인터파크

메타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



- 👤 공연단체/아티스트 평사의 모던댄스 Ttunchatdance
- 📅 일정 10.18.(Sun) 16:00
- 📍 공연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 티켓가격 R 40,000원 S 30,000원
- ⌚ 관람시간 60분
- 👥 관람연령 초등학교생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메타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은 안무가 윤상은이 지난 수년간 진행해 온 발레 워크숍 〈모든 몸을 위한 발레〉를 무대 위로 확장한 작업이다. 엘리트 예술의 정점인 발레는 무용 교육 과정에서 규범이자 기본 원리로 여겨져 왔다. 화려한 테크닉과 환상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대중을 사로잡지만, 그 이면에는 서구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 혹독한 훈련 체계, 그리고 특정 신체 조건으로 대상화되는 발레리나의 모습이 존재한다. 작품은 '과연 그것만이 아름다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래된 고전의 견고한 벽에 균열을 낸다.

여기, 정형화된 틀을 깨고 자신만의 발레를 시작한 이들이 있다. 2023년 SNS를 통해 모인 7명의 여성 참여자들은 고정된 규칙 대신 가이드가 제시하는 움직임 위에 각자의 고유한 신체성을 더해왔다. 이들에게 동작의 완벽함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온몸으로 발레를 가지고 놀며 웃고 떠드는 사이, 서로의 몸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단단한 커뮤니티로 연결되었다. 이들에게 발레는 더 이상 멀리서 선망하는 환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의 몸을 직시하고 표현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다. 고정된 인형의 외형을 벗어던지고 각자의 숨결로 움직이는 '모든 몸을 위한 발레'를 만나는 순간, 발레는 박제된 고전이 아닌 스스로 역동하는 오늘의 춤이 된다.

무용 〈메타발레: 비(非)-코펠리아 선언〉은 2024년 1월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랩(DOOSAN ART LAB)을 통해 쇼케이스로 선보인 후 발전시킨 작품입니다.

Credit

움직임 가이드 및 안무: 윤상은
움직임 창작 및 출연: 김혜인,
남선희, 박미용, 이가경, 임다운,
지혜경, 최윤희
작곡 및 연주: 한정원
드라마터그: 손예운
조안무: 주혜영
조명 디자인: 성미림

영상 오퍼레이터: 임기택
음향 감독: 곽다원
무대 감독: 김동영
무용음성해설: 황인정
무용음성해설 자문: 최유림
감사한 사람들: 이전 참여자
이민진, 신민

어서오세요_2026



- ♫ 공연단체/아티스트 제로셋 프로젝트 Oset project
- 🎵 일정 10.20.(Tue) 19:30 / 10.21.(Wed) 19:30
- 📍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 티켓가격 균일석 30,000원
- ⌚ 관람시간 150분
- 👤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생) 이상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NOL 티켓

“고객님들이 오시면 ‘어서 오세요’ 하고 웃음을 지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 <어서 오세요_2025> 중에서

그해, 그 길에 있던 가게는 문을 닫았다. 재난 참사 이후 돌아갈 일상이 없어진 사람들은 죽음과 삶의 이유를 찾아서 가게를 나섰다. 책임이 사라진 세계에서 무겁게 그 책임을 짊어진 이들은 ‘유가족’이 되어 거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어서오세요_2026>은 참사 이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용기 내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어떤 가게’의 문을 열고자 한다. 그 가게는 재난 참사 유가족을 통념 속 피해자가 아닌 여러 얼굴을 지닌 구체적인 사람으로 만나는 곳이다. 이곳에서 재난 참사를 둘러싼 고통의 이야기는 저 멀리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다음이 궁금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궁금해한다는 것은 그가 지닌 뜻밖의 얼굴을 만나는 일이다. 미용실의 원장이었고 빵집의 점원이었고 약국의 약사였던 얼굴들. 서로를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가게이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된 극장에서 서로의 뜻밖의 얼굴을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어서오세요’

Credit

구성·연출: 신재

출연: 문연옥, 송해진 외

영상 촬영: 박동명, 신재

영상 편집: 박동명

영상 접근성 편집: 새훈

공간 구성: 109, 석운동

사운드: 유은, 다이애나밴드

조명 디자인: 서가영

조명 오퍼: 조성민

조명 크루: 김병희, 오정훈, 권서령,

노명준, 나홍선, 정태진

무대 감독: 이효진

기술 감독: 목소

영상 수어통번역: 노지원, 박상욱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현장 수어통번역: 김선미

현장 문자통역: 장정수

영어 번역: 김알리사

현장 영문통역: 이나리

진행 스태프: 김솔기, 김은정, 양대은

프로듀서: 김진이

연극 | Theatre

문라이트 오키나와



- 👤 **공연단체/아티스트** 장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일정** 10.23.(Fri) 19:30 / 10.24.(Sat) 15:00 / 10.25.(Sun) 15:00
-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 🎫 **티켓가격** 균일석 40,000원
- ⌚ **관람시간** 135분
- 👤 **관람연령** 12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립극장



인터파크

〈문라이트 오키나와〉는 2024년 ACC 공연 레지던시를 통해 개발된 희곡으로, 2023년 제60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수상 작가 장영과 2020년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연출가 윤혜숙의 첫 협업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오키나와'와 '광주'라는 동북아시아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시간과 기억이 교차하는 시공간 속에서 두 인물의 관계와 기다림,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위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공연은 '의식을 지닌 관측자의 행위가 잠재태(潛在態, Potentiality)를 현실로 전환한다'는 양자역학적 상상을 문학적으로 구현한다. '의도가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며, 동시에 여러 세계의 층위를 넘나드는 지극한 러브스토리이기도 하다.

이야기는 극작가 '윤중'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0%의 확률이 넘는 일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는 믿음으로 20년 동안 단 하나의 연극 〈문라이트〉만을 무대에 올린다. 〈문라이트〉는 20년 전 오키나와에서 실종된 연인 '코하루'가 여전히 살아 있는 미래를 그린 연극이다. 그러나 윤중은 끝내 코하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고, 마지막 여정을 위해 오키나와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코하루가 자신의 미래를 담은 연극 〈문라이트〉를 이미 보았다는 설정을 담아 인생의 마지막 작품 〈오키나와〉를 쓰기 시작한다.

Credit

기획·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출: 윤혜숙
극작: 장영
조연출: 김성령
무대·조명 디자인: 여신동
음악: 박소연
영상 디자인: 강수연
소품·분장 디자인: 장경숙
의상 디자인: 오현희
의상 워드롭: 이승희
자막 디자인: 이청
무대 감독: 김상엽(A for A)
무대 조감독: 박승완(A for A)
조명 슈퍼바이저: 홍유진

사운드 디자인·사운드 시스템: 이현석
영상 감독: 모용우(IDSB)
영상 오퍼레이터: 김보성(IDSB)
무대 어시스턴트: 신정주
무대 제작: 에스테이지(s_TAGe)
제작 총괄: 정승재(ACC)
프로듀서: 양수연(ACC)
출연: 윤현길, 김정, 이지혜, 정하, 강혜련,
이유주, 권주영, 오유라
영상 출연: 성여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25-26 협력예술가
& 2026 아시아 극작가 프로젝트 참여
작가: 장영

연극 | Theatre

기억의 저편



- 👤 **공연단체/아티스트** 말리초 바카 발렌수엘라
- 📅 **일정** 10.24.(Sat) 19:00 / 10.25.(Sun) 15:00, 19:00
- 📍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 **티켓가격** 균일석 50,000원
- 🕒 **관람시간** 55분
- 👥 **관람연령** 만 16세(고등학생) 이상



연출가 말리초 바카(Malicho Vaca)는 팬데믹 봉쇄 기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산티아고 시민들의 기억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칠레 수도의 중심이자 모든 집회와 시위가 발발하는 활기찬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증언이 쌓여가면서 소박한 개인 연구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어느새 정체를 규정할 수 없는 독창적인 하나의 무대적 오브제(scenic object)로 변모했다.

<기억의 저편>은 디지털 플랫폼을 섬세하고도 매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이지 않는 여정’이다. “드넓고 푸른 하늘 아래 누구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지만, 정작 땅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연출가는 기꺼이 기억의 대지를 파고든다. 그는 디지털 지도 위를 단 한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미스터리한 사랑의 흔적과 억눌린 혁명의 기억,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역사의 파편들을 생생하게 발굴해 낸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매우 섬세하고도 정치적인, 동시에 한없이 친밀한 다큐멘터리 에세이를 마주하게 된다. 작품은 지도 위 마법 같은 장소들에 초점을 맞추며 거대한 감정적 지형도를 그려낸다. 도시와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상이한 기억 속에서 우리는 결국 서로 연결된다.

그리고 작품은 우리에게 나지막이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흔적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목소리는 거리 위에, 혹은 외부 기억장치의 외로운 폴더 속에 남게 될까?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없을 때, 구글(Google)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 우리는 다시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만지며,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현실을 함께 복원해낼 수 있을까?

Credit

창작, 연출, 영상, 극작: 말리초 바카 발렌수엘라
출연: 말리초 바카 발렌수엘라
이미지: 로사 알파로, 린도르 발렌수엘라
조연출: 에바나 가린 코로나엘
행정, 프로덕션 및 배급: 에바나 가린, 루이스 게넬, 로니 이솔라, 폰다시온 쿠에르포 수르
감사: 나의 조부모님께. 말리초 바카 발렌수엘라는 폰다시온 쿠에르포 수르의 협력 예술가입니다.

낭독극 | Staged Reading

네오메트로폴리스



- 공연단체/아티스트 팻 토 안
- 일정 10.14.(Wed) 19:00
- 공연장소 NC문화재단 스테이지 블랙
- 티켓가격 균일석 10,000원
- 관람시간 100분
- 관람연령 만 13세(중학생) 이상



NOL 티켓

아시아 극작가 프로젝트 — 실재와 상상의 공간을 쓰다

아시아 극작가 프로젝트는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기관들이 협력해 동시대 아시아 극작의 흐름과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탐구하고, 새로운 희곡을 소개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

한때 식물들의 의지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던 세계가 존재했다. 세월이 흐른 뒤, 도시는 숲을 고립시켰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숲은 마침내 반격을 결심한다. 뿌리는 강철과 콘크리트의 틈새를 파고들고, 숲은 선언한다.

“이 행성에서는 수없이 많은 종의 멸종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간의 차례다!”

<포스트휴먼 저니 트릴로지> 이후, 팻 토 안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새로운 연작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작품인 <네오메트로폴리스>는 2024년 독일 기센극장(Theater Gießen)에서 초연되었으며, 이후 헬싱키, 홍콩,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낭독공연으로 소개되었다.

인류의 안녕을 위해 스마트시티 네오메트로폴리스는 도시와 숲을 분리하는 거대한 방어막을 세웠다. 도시 내부에서는 시위가 확산되고, 숲은 도시를 향한 반격을 결심한다.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장과 거대 기술기업은 닥쳐올 위기 앞에서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다.

도시와 숲의 충돌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이를 해결할 열쇠는 사랑하는 고양이를 잃어버린 소년 어니스트(Earnest)에게 쥐어져 있다. 집 안의 식물들은 숲이 고양이를 불러들였고, 그래서 고양이가 숲으로 떠났다고 말한다. 고양이를 되찾기 위해 어니스트는 도시의 감시 시스템을 피해 숲 깊숙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자연과 기술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한다.

Credit

기획·제작: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극작: 팻 토 안(Pat To Yan) / 연출: 전인철 / 출연: 김도완, 권일, 윤경, 한지수, 황성현 / 드라마터그: 전강희 / 무대: 박상봉 / 조명: 정유석 / 한국어 번역: 김은아 / 조연출: 허정우 / 단체: 극단 돌파구

낭독극 | Staged Reading

발파라이소의 긴 비탈을 내려가는 이야기



- 👤 공연단체/아티스트 가미사토 유다이
- 📅 일정 10.15.(Thu) 19:00
- 📍 공연장소 NC문화재단 스테이지 블랙
- 🎫 티켓가격 균일석 10,000원
- ⌚ 관람시간 50분
- 👥 관람연령 만 13세(중학생) 이상



NOL 티켓

아시아 극작가 프로젝트 — 실재와 상상의 공간을 쓰다

아시아 극작가 프로젝트는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기관들이 협력해 동시대 아시아 극작의 흐름과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탐구하고, 새로운 희곡을 소개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

죽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먼 옛날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

파라과이에서 관측된 개기일식의 이야기.

오키나와에서 지금도 전몰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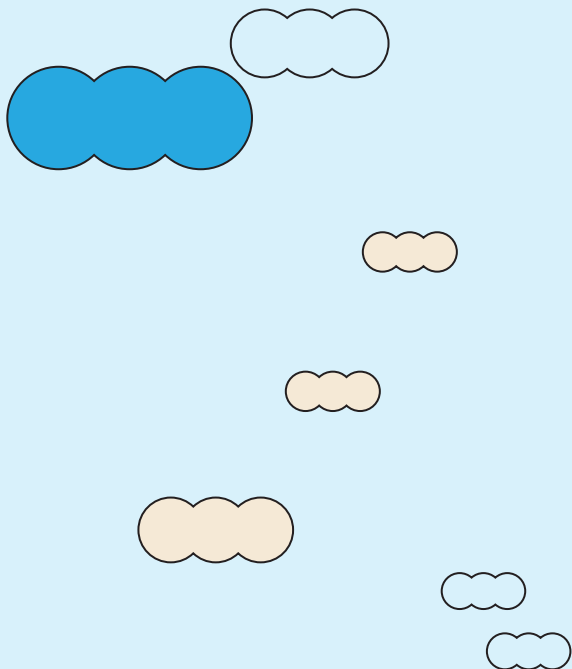
그리고 오가사와라에서 바를 운영하는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

오세아니아, 오가사와라, 류큐 제도, 라틴아메리카를 여행하며 가미사토 유다이가 직접 수집한 에피소드들을 엮어낸, '메신저로서의 연극'.

연극계는 물론 문학계에서도 주목받으며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해 온 가미사토는 이 작품을 통해 '이주'의 역사를 탐구한다. 남미 곳곳을 여행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작품은,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와 각 지역에 깃든 기억,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관객과 공유하는 다층적인 '보고(reporting)'의 형식으로 펼쳐진다.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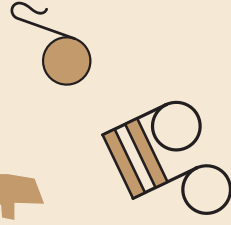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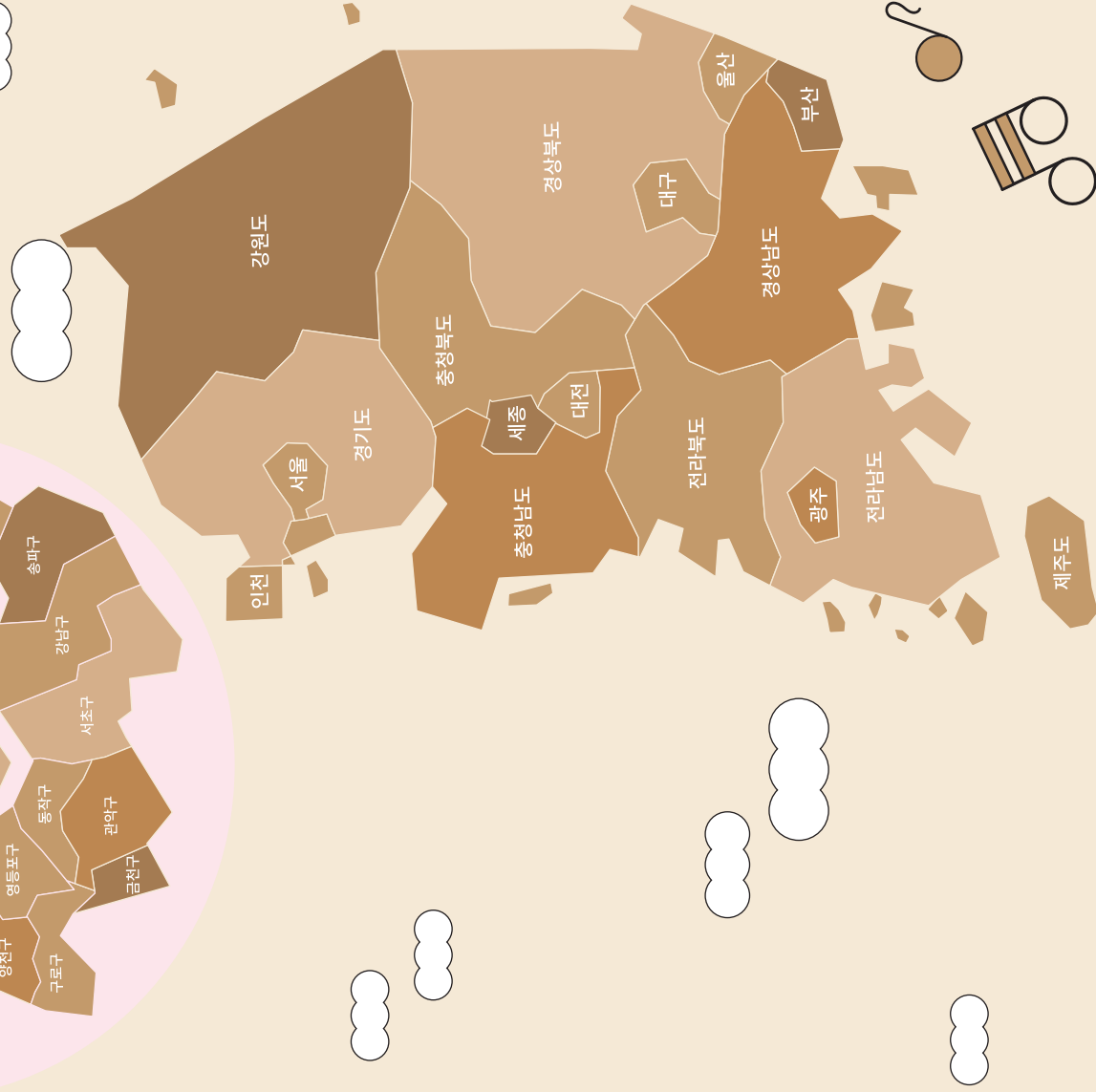
기획·제작: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극작: 가미사토 유다이 / 연출: 전인철 / 출연:
김도완, 권일, 권정훈, 성여진 / 드라마터그: 전강희 / 무대: 박상봉 /
조명: 정유석 / 한국어 번역: 이지현 / 조연출: 허정우 / 단체: 극단 돌파구



전국은 공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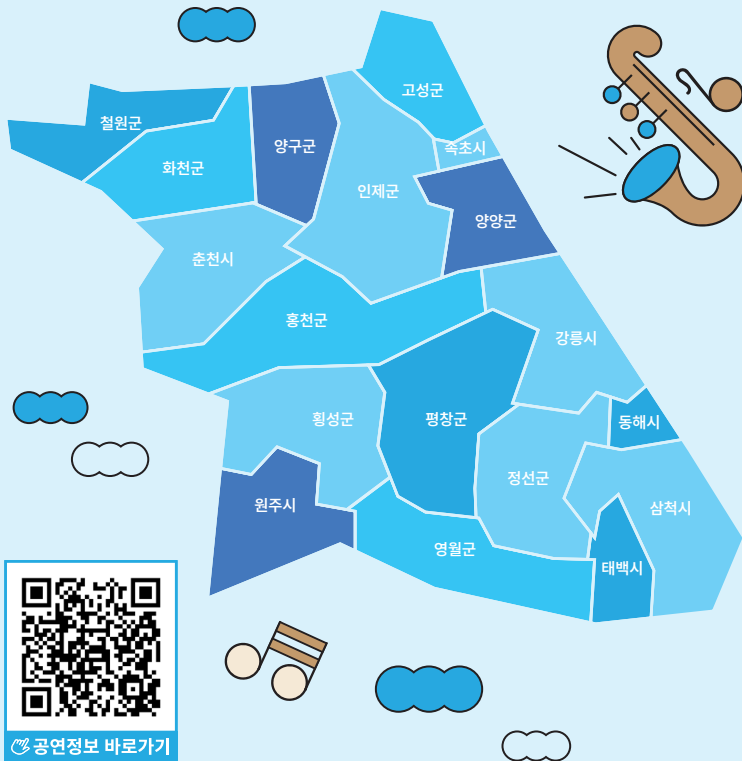
400여 개 공연장에서 약 1,400편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10월과 11월, 대한민국 곳곳이 공연중입니다.
 가까운 공연장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무대를 만나고
 지역의 색을 담은 공연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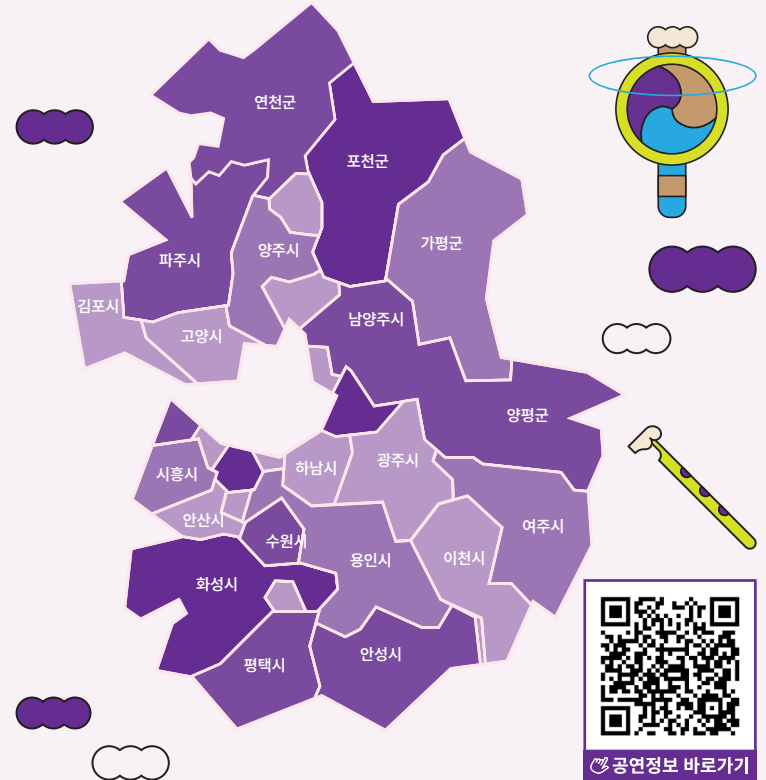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연중

산과 바다를 따라 떠나는 길, 강원 곳곳에서 만나는 공연이 여행의 한 장면이 됩니다.
강원은 지금 공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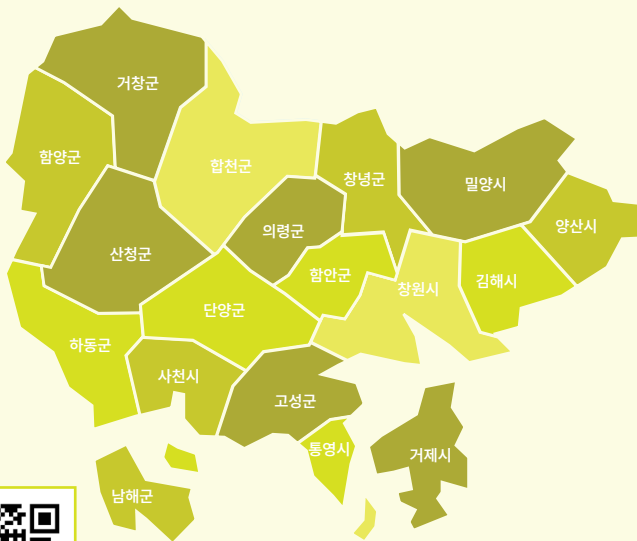
경기도는 공연중

가까운 도시에서부터 조금 더 먼 동네까지, 경기도 곳곳의 무대가 관객을 기다립니다.
경기는 지금 공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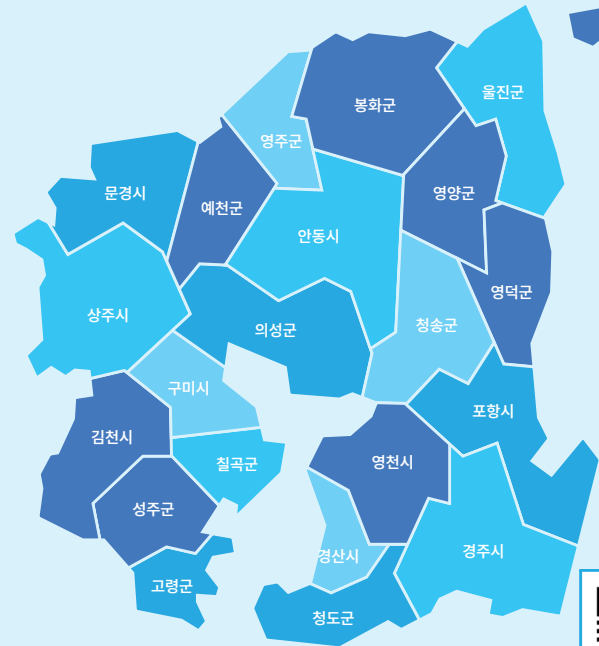
바다와 도시를 오가는 길마다 새로운 무대가 기다립니다.
경남은 지금 공연중!



☞ 공연정보 바로가기



오래된 도시와 새로운 무대가 만나는 곳. 경북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만나보세요.
경북은 지금 공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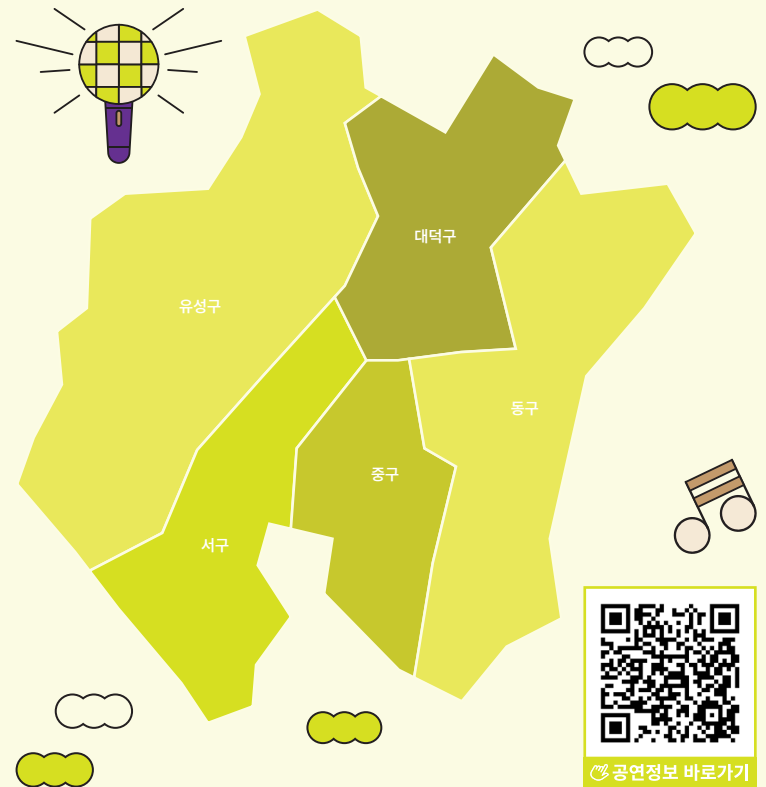
☞ 공연정보 바로가기



익숙한 거리에서 낯선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대구의 공연장에서 오늘의 무대를 만나보세요.
대구는 지금 공연중!



오늘의 발걸음이 공연장으로 이어지는 도시. 가까운 무대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세요.
대전은 지금 공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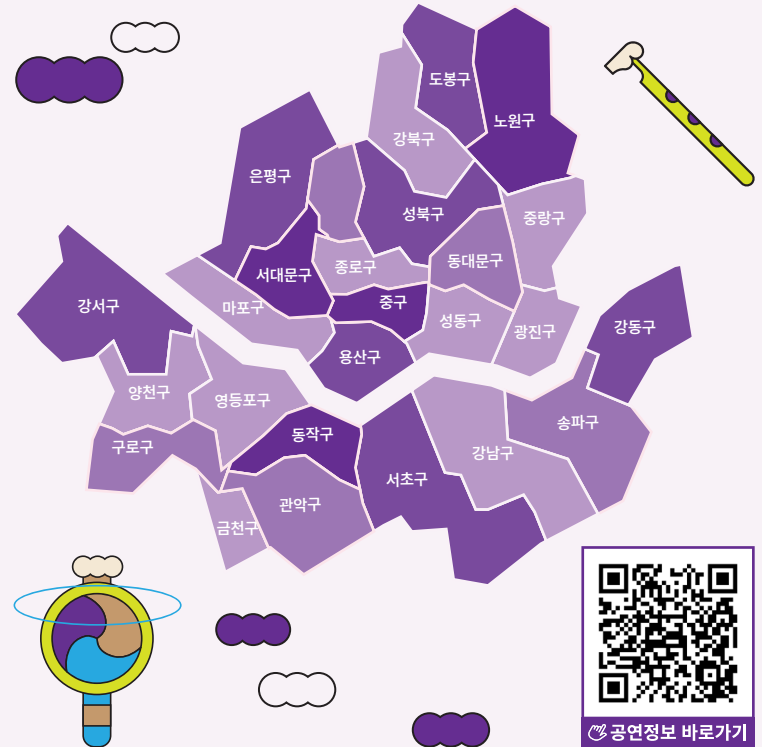




바다를 따라 걷다 만나는 또 하나의 풍경. 부산 곳곳의 무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산은 지금 공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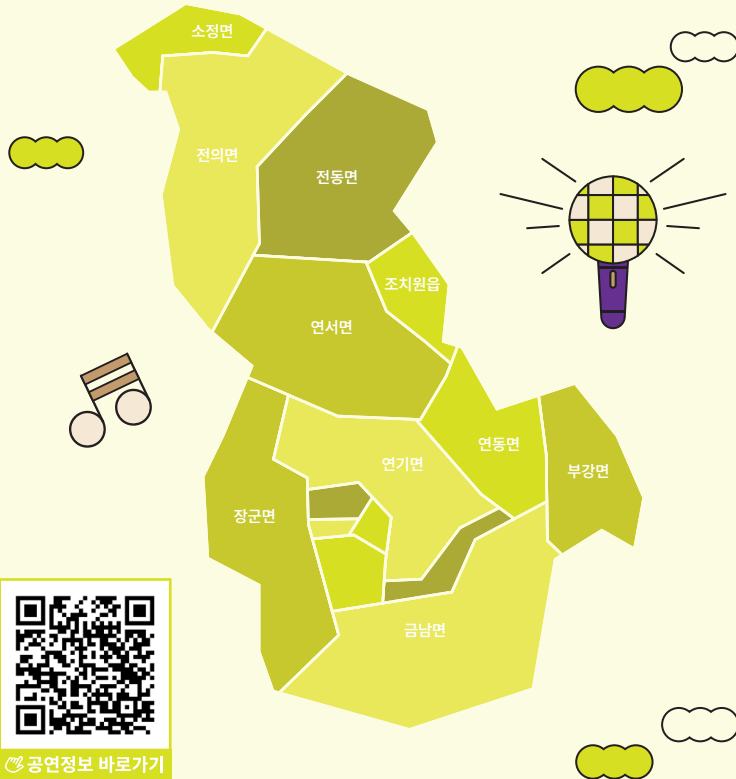


바다와 도시가 만나는 곳, 무대 위에서도 다채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인천은 지금 공연중!





일상 가까이 자리한 무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종은 지금 공연중!



바다와 도시를 잇는 길 끝에서 무대가 기다립니다. 울산 곳곳의 공연을 만나보세요.
울산은 지금 공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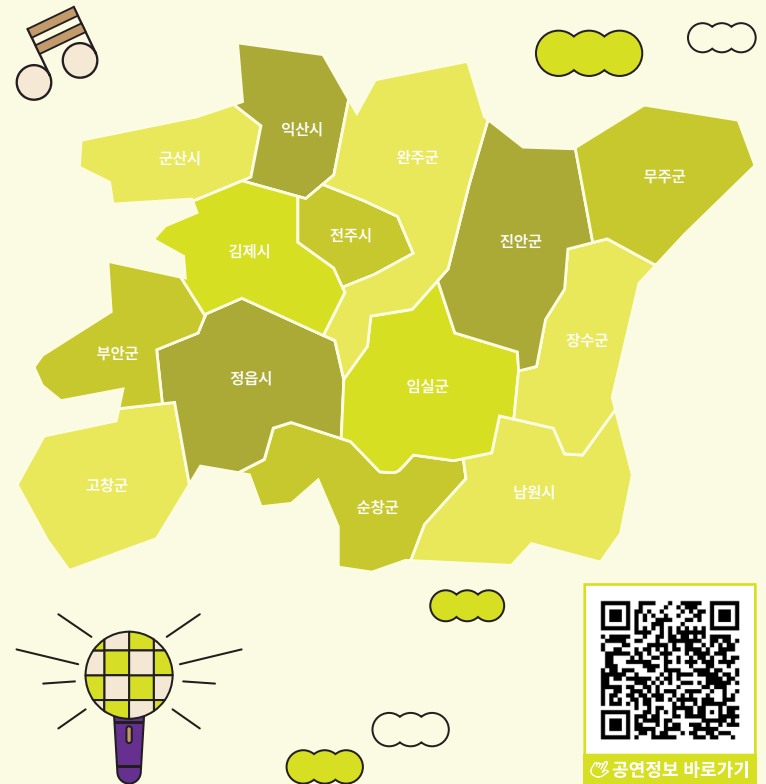
인천은 공연중

바다와 도시가 만나는 곳, 무대 위에서도 다채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인천은 지금 공연중!



전북은 특별한 공연중

오래된 풍경에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지는 곳. 전북의 무대가 오늘의 관객을 기다립니다.
전북은 지금 공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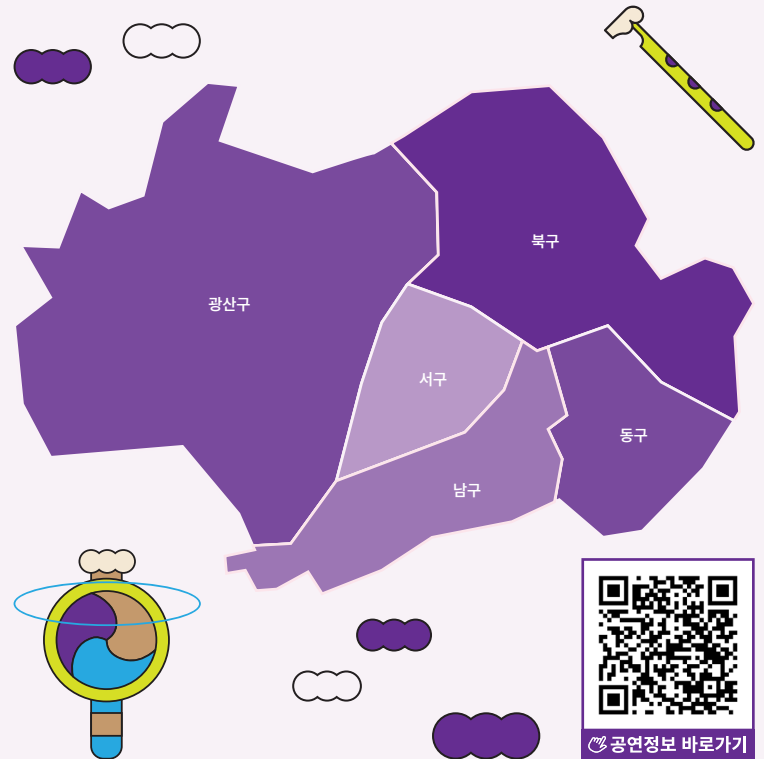
전남광주는 공연중

섬과 바다, 마을을 따라 이어지는 여행길에 공연이 특별한 침표가 됩니다.
전남은 지금 공연중!



특별한 광주는 공연중

예술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에서 공연이 일상에 새로운 장면을 더합니다.
광주는 지금 공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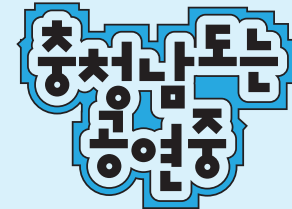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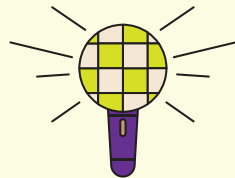




바람 따라 걷다 공연을 만나는 섬. 제주에서의 하루에 무대 위 이야기를 더해보세요.
제주는 지금 공연중!



☞ 공연정보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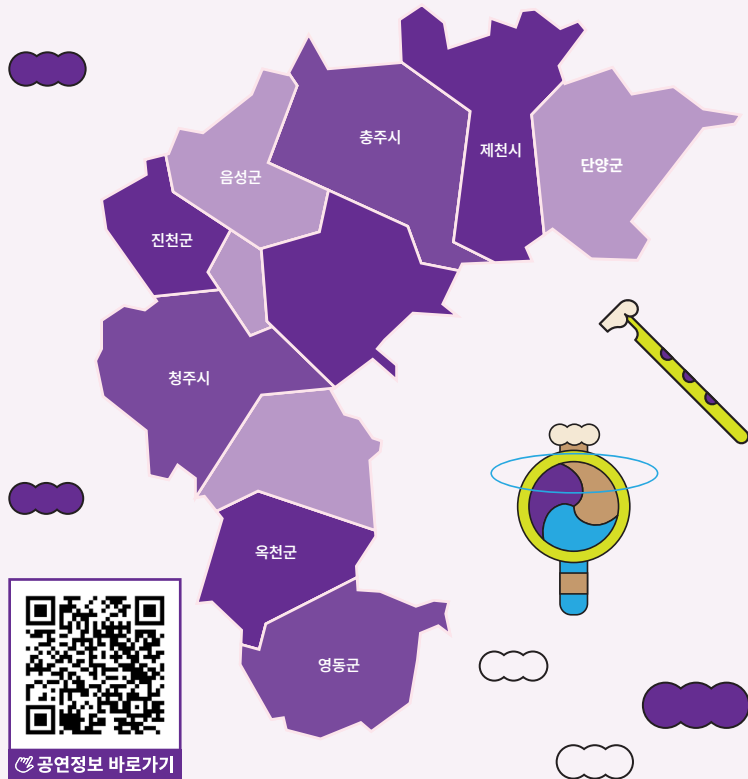
바다와 들길을 따라 이어지는 발걸음, 충남 곳곳의 공연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충남은 지금 공연중!



☞ 공연정보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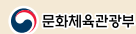
호수와 산을 따라 이어지는 여정길, 충북 곳곳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충북은 지금 공연중!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차관	김영수
문화예술정책	
실장	정향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강은영
사무관	손해영
주무관	강부민



주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승명호
대표	김장호
공연예술본부	
본부장	김승연
공연유통팀	
팀장	정인혜
대리	박해송
주임	김종현
주임	박은혜
주임	김다영
주임	민정현
주임	박정현
협력PD	배윤주



협력

강원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라남도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부산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경북문화재단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울산문화관광재단	충북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